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11월 8일 보스톤 페어몬트 카플리 호텔에서 열린 당선평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는 모라 힐리 주지사 당선자. 그는 매사추세츠 최초의 여성 게이 주지사로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매사추세츠 첫 게이 여성 주지사, 첫 흑인 여성 검찰총장 승리

미국내 첫 여성 주지사 및 부주지사팀
매사추세츠 여성 정치인 전성시대 열었다
6개의 선출직 정치인 중 5명이 여성 정치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매사추세츠 주지사 선거에서 인권변호사 및 농구선수 출신인 모라 힐리 법무장관(Maura Healey, 51)이 공화당 제프 디일(Geoff Diehl) 후보에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9일 당선됐다.

법무장관시절 트럼프 대통령과 빅테크 등을 소송해 미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였던 힐리 주지사 당선자는 첫 여성 게이 주지사가 됐다. 또한 주내 대부분의 선거직을 여성들이 차지하며 매사추세츠 주 역사를 다시 쓰는 데 선봉장이 됐다.

앤드레아 캠벨(Andrea Campbell) 전 보스톤 시의원은 9일 선거 >>8면으로 계속

8시간 대기 MA 응급실 포화상태 위험수위 넘어

병원 대기중 진료포기하고 돌아가는 환자 늘어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주 병원 응급실이 환자들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는 기다리다 지쳐 치료를 포기하고 떠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올해 69세의 재닛 쿡씨는 지난 달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을 찾았다. 환자로 북적대는 홀에서 휠체어를 타고 무려 8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겨우 침대를 배정받을 수 있었다.

복도에는 임시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들로 줄을 서있었고 간호사들은 지금은 침대가 없다고 양해를 구했다. 목 경추 골절로 고통에 시달리는 한 여성은 계속해 도움을 호소하는 등 전황 더럽다는 것이 재닛씨의 회상이다.

그러나 응급실 만원 사태는 비단 MGH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매사추세츠 전역의 병원 응급실은 아픈 환자들의 급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의사들은 이 같은 응급실 만원 사태는 유례없는 일이라고 >>7면으로 계속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이민법
상법
민·형사소송
이혼

617.504.0609
law@lookjs.com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lookjs.com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2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영수씨 매사추세츠 42대 한인회장 확정

새로운 회칙에 따라 선관위 공표 후 이사회 보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제 42대 매사추세츠 한인회장 선거 후보에 단독 출마했던 장영수 관장(49)이 11월 4일 한인회장으로 확정됐다.

선관위(위원장 김동원)는 11월 4일 오후 6시 우편 소재 한인회관에서 장영수 후보와 면담을 갖고 후보 검증절차를 갖고 장영수 후보를 42대 매사추세츠 한인회장으로 당선됐음을 선언했다.

선관위와 한인회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회칙에 의해 이사회가

당선을 인준하지 않고 선관위가 이사회에 보고만 하는 것이며 한인회장의 당선 여부는 선관위가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동원 선관위원장은 9일 당선 확정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이에 따라 장영수 후보는 한인회장 당선자로 내년 1월 1일부터 한인회장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영수 당선자는 지난 10월 31일 마감된 한인회장 선거 후보 등록 기간에 단독후보로 등록했다. 선관위는 서명지와 공탁금 등을

모두 확인했다.

장영수씨는 보스톤 북쪽 멧두은(Methuen, MA)에서 태권도장, 장스태권도아메리카를 운영하고 있다.

장 후보는 지난 11월 2일 보스톤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체육관은 제자들이 대부분 (운영)하고 있어서 이제는 시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일을 할 때가 됐다. 그동안 많이 받았으니 한인사회에 환원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며 “한인들의 인권과 미국사회 융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출마의 변을

남겼다.

그는 “서영애 한인회장님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으니 하 시던 것을 잘 이어받아서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하고 “여러가지 이유로 한인사회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도 다른 한인분들과 좀 더 나눌 수 있도록 화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서영애 회장은 “또 다른 2년 동안 한인회장 직을 수행하기에는 벅찬 면이 많았다. 앞으로 장영수 회장이 잘 한인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열심히 돕겠다” 고 밝혔다. 서 회장은 “약 3년 정도의 기간이 한인회장직을 수행하는데 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고 말해 사실상 아직도 회장으로서 한인회 사업을 성장시키고 싶은 것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서영애 회장의 연임을 기대했었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41대 한인회는 12월 10일 토요일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를 마지막 행사로 모든 임기를 마무리지며 이 행사에서 신규회장 이취임식도 겸할 예정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케임브리지 빨간불 우회전 금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케임브리지 시의회는 7일 빨간 신호에서 차량 우회전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다. 빨간불 우회전 금지는 미국내 몇몇 시와 타운만이 선택하고 있다.

시 의회는 화상회의로 열린 회의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관련 부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안을 7대 2로 통과시켰다.

케임브리지시에 앞서 워싱턴 DC와 미시간 앤 아버시도 빨간불 우회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일반적으로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빨간불 우회전이 허용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운전관례다. 그러나 뉴욕시에서는 이미 불법이며 캘리포니아주 버클리도 이 법안 채택을 고려 중이다.

현재 약 70%의 케임브리지 교차로는 이미 “노턴언레드(No turn on red)” 사인을 통해 빨간불 우회전을 금지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앨라나 맬런 부시장은 케임브리지의 이번 법 제정이 본보기가 돼서 다른 타운과 시들도 이를 채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제 교통안전 개선 캠페인인 비전제로에 대한 케임브리지 시의 참여의지의 일환으로 채택됐다.

hsb@bostonkorea.com



11월 4일 매사추세츠 한인회 선관위가 장영수 한인회장 당선을 선언하고 기념촬영을 가졌다(사진=선관위 제공)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Beef Soup for the Soul
서울설렁탕
SEOUL SOU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보스턴총영사관, 3년만에 참전용사 감사오찬 개최

팬데믹 후 확 줄은 한국전 참전 용사들 100여명 참석 참전용사들, 앞다퉈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와 위로 한 한국전 참전용사 평화의 사도 메달 받고서야 임종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주보스턴총영사관은 팬데믹 7일 월요일 프레밍햄에 위치한 셰라톤 프레밍햄호텔에서 3년만에 감사오찬을 개최했다. 올해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오찬에는 팬데믹 여파에 띄게 참가자 수가 줄은 단 100명의 참전용사 및 가족들이 참석해 안타깝게 했다.

지난 2019년 약 240명의 참전용사가 참여했던 것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은 수치다. 한인 참전용사로는 97세의 강경신씨와 91세의 김태혁씨 단 2명만 참여했다.

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140여명이 참석 예약을 했지만 막판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다른 병환 등으로 상당수가 참여하지 못했다. 참석한 참전용사들은 옛 전우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하고 추억을 회상기도 했다.

유기준 총영사는 “(감사오찬을) 3년 동안 미뤄두었는데 비록 참가하신 참전용사들이 적고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

더라도 이분들을 모시고 점심을 대접하게 됐다” 고 밝혔다.

유 총영사는 축사에서 “이번 참전용사 오찬을 두가지 이유로 아주 고대해왔다. 하나는 부임한 후 첫 번째로 참전용사들을 직접 대면으로 오찬을 하게 된 것이며 둘째는 1882년 한미수교 14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참전용사들이 자유를 위해 희생한 것은 결코 헛되지 않았으며 전쟁후 폐허에서 오늘날의 번영된 민주주의와 경제강국으로 변모하게 했다” 고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감사했다.

세릴 포프 보훈장관은 “한국의 이태원 참사에 매사추세츠를 대표해 진심으로 위로드린다. 빠른회복을 바라며 희생자 가족에게 조의를 표한다” 말하고 “한국의 총영사관과 한인사회가 팬데믹 동안 마스크와 세정제를 기부하고 평화의 사도 메달을 증정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고 말했다.

특히 “한 한국전 참전용사 첼시

솔저스홈에서 거의 임종에 가까운 상태였지만 평화의 사도메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렸으며 그는 메달을 받은 후 임종했다” 며 그만큼 “한국의 의미가 컸다” 고 말하고 “최근 (한국정부가) 레니게이드와 조셉 프리폴로의 유해를 매사추세츠에 귀환하도록 도운 것을 감사한다” 고 밝혔다.

제임스 맥거번 연방 하원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운 고귀한 정신이 전 세계에서 공경받고 있다. 따라서 이 정신을 다시 되새겨 어느 곳이건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싸워야 한다” 고 말하고 “(참전용사)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고 말했다.

알버트 맥카시미 한국전참전용사회 부회장은 “이 행사는 단순히 식사와 추억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고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우호 이상의 관계다. 참전용사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으며 한국은 결코 이 참전용사를 잊지 않고 있다.” 고 말하고 “우리가 70년 전에 자유를 위해 싸웠으니 앞으로의 70년도 함께 하자며 한국어로 ‘같이 감사다’ ” 라고 말했다.



사진 좌부터 유기준 총영사, 세릴 포프 보훈장관, 알버트 맥카시미 참전용사 부회장



11월 7일 월요일 셰라톤 프레밍햄 호텔에서 열린 한국전참전용사 감사오찬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이날 행사에는 가야금 오정희씨와 해금 그레이스이경강씨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유레이즈미업, 새타령, 아리랑 메들리를 가야금과 해금으로 연주하고 창도 곁들였다.

이날 행사에는 서영애 한인회장, 양미아 시민협회장, 한선우 평통회장, 김성군 시민협회 이사장, 소파박 시민협회 사무총장이 참여했으며 김

영환 박사 부부는 참전용사들에게 나전칠기 선물을 준비해 증정했다.

김영환 박사는 “웨스트보로에 있는 한국전참전용사비를 오가며 보면 서 어떤 형태로든 감사의 뜻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10여년전부터 말만해 오다가 더 늦기 전에 작은 것부터 하자고 해서 선물을 준비했다” 고 말했다.

Shoe City Family Dental (원장: 김동원)

코로나로 변한 세상,
이제 당신의 건강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의료 장비와
최고의 의사가
최고로 건강한 치아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103 Merrimack St
Haverhill, MA 01830

Phone : 978.971.0060
Fax : 978.971.0061

텡스대 한인 학생들, 이태원 근조 리본 달고 마라톤

텡스 플래처스쿨 북한워킹그룹 동아리 학생들과 교수 모두 완주 북한 인권, 제주4.3사건, 이태원 참사, 기치 걸고 마라톤 참가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국내 각종 인권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한인 대학생들이 마라톤으로 나섰다. 텡스 플래처스쿨 내 북한 워킹그룹(North Korea Working Group at Fletcher, 이하 NKWG) 동아리 학생들은 6일 일요일 케임브리지에서 열린 하프 마라톤 대회

에 북한 인권, 이태원 참사, 제주4.3 희생자 추모 기치를 걸고 참가했다. 학생들과 함께 마라톤에 참가한 텡스 플래처스쿨 이성윤 교수는 “원래 북한의 다면적 인권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하프 마라톤에 참가하기로 했으나, 지난

몇 달 동안 학생들과 제주 대학살(제주4.3사건)에 대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면서 3만 여명의 민간인이 희생된 제주 학살 희생자를 함께 추모하기로 선언했다.” 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인권, 제주4.3희생자 문제 외에도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RIP

Victims of Itaewon Tragedy’ 라고 적은 근조 리본을 손수 만들어 달고 뛰었다.

플래처스쿨에서 국제 안보 및 분쟁 해결학을 공부하고 이태희씨는 “첫 하프 마라톤 출전이라 완주를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는데 북한 인권 문제를 비롯해 이태원 참사와 제주 4.3사건 등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비극을 함께 기억하고 추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완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라며 뿌듯한 마음을 전했다.

NKWG 동아리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정도영 씨는 “요즘 한반도 안팎으로 시끄러운 가운데 미국에서 한국을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마라톤을 펼 수 있어 영광스러웠다. 또한 이번 기회로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응원하러 나온 NKWG 동아리 학생들도 이태원 참사 근조 리본을 달고 결승선에서 기다렸다. 동아리 학생 임한성 씨는 “북한

사람들이 바깥 세상을 자유롭게 할 보하게 되는 날 그들의 인권을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렸던 마라톤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좋겠다.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다.” 고 말했다.

케임브리지 하프마라톤대회는 케임브리지 사이드에서 시작해 켄달 스퀘어, 워터 타운, 허버드스퀘어 등을 돌아 다시 케임브리지 사이드로 돌아오는 13.1마일 거리의 USATF 인증 코스이며 세 시간 안에 완주해야 한다. 이번 대회에는 약 6천여명이 참가했으나 3,957명만이 세 시간 안에 완주했다.

마라톤에 참가한 NKWG 동아리 학생들은 인권, 평화, 환경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보스톤에서 설립된 학술단체 <월든 코리아(WaldenKorea.org)>의 기획 위원들이기도 하다. 이번 행사는 월든 코리아가 후원했으며 보스톤 총영사관 관계자도 참석해 차가자들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bostonkorean@hotmail.com



이태희(좌), 로지 디소토, 텡스 플래처스쿨 이성윤 교수, 임한성, 정도영 학생

스티브 배 변호사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이민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7일 24시간 변호사와 상담 가능합니다



Steve Bae

이민법 전문 변호사

781.457.8846

steve@attorneystevebae.com
attorneystevebae.com

48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마음대로 골라본다
\$24.99

조정된 상품 가격 (5월 1일부터, 무료영화는 6월부터 편당 1화로 변경)

Plus 상품 KBS, MBC, SBS, EBS, YOUTUBE \$24.99	Premium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YOUTUBE \$34.99	VIP 상품 KBS, MBC, SBS, EBS, 케이블/종편, 영화/성인, YOUTUBE \$39.99
---	--	---

*전상품 1년 약정

NOW 지금 전화하세요!
617.949.1766

연말뉴스TV MBN JTBC / JTBC골프 / 채널A(동아방송) / KIDS / 육아방송 / CBS(기독교방송) / ETN / 바둑TV / 이벤트TV / KTV / 우리방송

매사추세츠 백만장자세 승인, 주민투표 최종 결과 분석

치과보험 고정손실을 채택, 불체자 운전면허도 허용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9일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4가지 주민투표에서 대부분 여론 조사 결과를 어긋나지 않은 선택을 했다. 다만 일부는 예상보다 박빙의 차이로 또 다른 문제는 큰 차이로 선택이 갈렸고 주류판매 허가만 부결됐다.

특히 백만장자세를 부과하는 1번 주민투표의 경우 자신도 주택 또는 사업체를 매각했을 때 이 세금의 해당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해 아주 근소한 차로 백만장자세 부과를 승인했다.

그러나 치과보험사들의 수익의 일정부분 이상을 보험료와 보험가입자의 혜택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민투표 2안은 압도적인 표차를 기록했다.

매사추세츠 주민투표의 결과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알아본다.

주민투표 1안 - 백만장자세

연소득이 1백만달러가 넘는 경

우 4%의 부가세를 붙인다는 조항으로 매사추세츠 5% 소득세 외 4%를 더내게 된다. 이에 따라 13억에서 19억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교육과 교통에 사용하게 된다.

11월 9일 오후 2시 95%의 개표상황에서 51.9%가 찬성, 48.1%가 반대를 기록 상당히 근소한 차이로 이 안은 통과됐다.

매사추세츠 예산정책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 1백만달러를 넘는 자본소득을 기록하며 필린 집은 2%에 불과하다. 텅스대학 재정분석센터에 따르면 내년에는 2만6천명이 1백만달러 이상 소득을 올리며 이는 주내 가구의 1% 미만이었다.

주민투표 2안 - 치과보험 비율

주민들은 압도적인 71%에 29%의 표차로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매사추세츠 치과보험시장은 큰 변화를 맞게 될 예정이다.

첫째 보험사들은 수익의 83%를

치과 치료와 관련된 고정손실율(fixed-loss ratio)에 사용하고 나머지만 행정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는 미국내 처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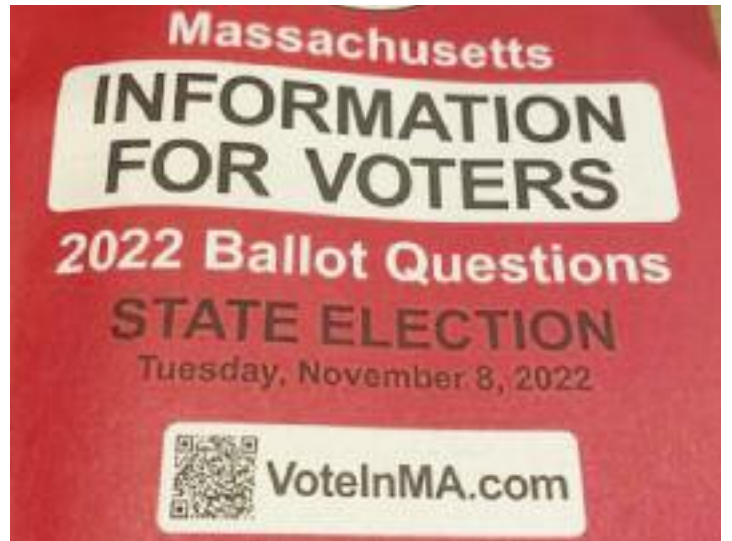
향후 구제안은 어떻게 될지 상당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치과사들은 보험사와 가격을 협상하는데 있어 더 큰 힘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은 현재의 고정손실율과 예측되는 고정손실율을 매사추세츠 보험부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연 재정보고서를 보험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문연구기관인 텅스대 주정책분석센터에 따르면 소비자의 혜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험사들은 전체 지출의 70-80%를 이 치료관련 지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투표 3안 - 주류판매허가

3안은 사업체가 보유할 수 있는 맥주와 와인 판매 허가를 2배로 늘리고 대신 전체주류판매허가(full liquor licenses)를 줄이는 안이었으며,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이를



부결시켰다. 약 1백10만명이 반대했으며 91만9천명이 찬성했다.

주민투표 4안 - 불체자 운전면허 주의회가 통과시킨 불체자 운전면허 허용법을 그대로 허용키로 매사추세츠 주민들은 선택했다.

비공식 집계로 1백20만(53.5%)이 찬성했으며 약 1백만(46.5%)이 반대했다. 진보그룹과 각 지역 검사장들 그리고 주요 도시 경찰서장 등은 이 법안이 운전자들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며 찬성했다

사실상 무보험 무면허 불체자들은 사고를 내는 경우 처벌과 추방이 두려워 대부분 뺑소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에게 운전면허와 보험을 제공하는 경우 그만큼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할 확률은 적어진다. 법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시작된다.

hsb@bostonkorea.com

면역력 재충전

120년의 철학

국내산 6년근 만을 고집하며,
100% 계약 재배한 인삼 만을 사용합니다.

+

홍삼정 240g
1개 구입시 30g 증정

타주로도 배송 해드립니다.

로 주문 후 다음날 편하게 받으세요.
\$100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J.K. PLUMBING & HEATING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업체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MA ,15777

49년만에 은퇴한 BSO 제1바이올리니스트 황보엽 선생과의 대화

11월 1일 웨스턴 자택에서, 치열한 음악 열정, 삶의 여정 얘기 들어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장명술 기자 = 11월 첫날 보스턴 심포니(BSO)를 49년만에 은퇴한 바이올리니스트 황보엽 선생을 만났다. 황선생의 웨스턴 자택을 방문하기 위해 30번도로를 타고 서쪽으로 달렸다. 집 인근 비터스윗(Bittersweet) 레인에서 좌회전을 해야 했다. 특이한 도로명이라 뇌리에 머무른다.

황보엽 선생은 한국 음악 1세대에 가깝다.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한국전쟁 전후 시절 음악을 시작해 미국 5대 심포니 중의 하나인 BSO의 제1바이올리니스트에 이르기까지 삶의 여정이 궁금했다. 대가에게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도 설다.

화요일 아침, 그랜드 피아노가 놓인 응접실에서 커피한잔과 함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약간 흐린 날씨였지만 아침 바람은 상쾌했다.

8월 탱글우드 시즌 종료와 함께 은퇴한 그는 곧바로 고관절치환(Hip replacement)수술을 받았다. 이제 걷고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됐다. 은퇴 후 “여유가 있어 좋다”는 그였지만 일상의 관심은 아직 은퇴를 실감하지 못한 듯했다. 매일 아침 ‘뭉가 없나’ 자신의 스케줄을 점검하게 된다는 것이다. 비터스윗, 은퇴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바이올린과 음악에 관한 이야기
부산피난시절 교회에서 피아노음을 듣고 이를 악보에 적는 훈련을 했는데 단점을 맞곤했다. 합창단에서도 활동했다. 서울로 돌아온 후 황선

생의 어머니는 일본에서 바이올린을 주문했다. 몇 번을 주문했는데 통관시 사라지곤 했으며 몇 차례 만에 드디어 바이올린을 구할 수 있었다.

바이올린의 거장도 시작 때엔 치열한 연습의 과정이 필요했다. 황선생은 “바이올린을 배울 때 늘 손 놓는 곳 이런 기술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했다. 연습하면서 내가 하는 음악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래서 모든 연습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녹음해서 들으면 도저히 라디오에서 들리는 그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었다.” 고 말했다.

어렸을 때는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으며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알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제시대 군대 군악대에서 배우거나 해서 음악을 가르쳤을 정도였다. 당시에는 리코더도 구하기 어려웠다. 리코더 테이프 이런 것은 사치성 물건이어서 구하기도 힘들었다.

“대학에 들어가서야 안영구 선생님께서 제대로 배울 수 있었다. 독일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이었는데 이분에게서 배운 것은 독일 음악을 하려면 독일 문화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나라 문화를 모르면 그 음악을 제대로 연주해 낼 수가 없다.”

“플라멩고의 느낌은 그나라 음악을 연주할 때 그대로 표현된다.”는 그가 플라멩고의 경쾌한 느낌을 음과 몸짓으로 표현했는데 정말 그 느낌이 살아났다. 헝가리 음악은 한국과 유사해 모든 음악의 첫부분이 강

하게 시작되는 느낌이란 것도 직접 노래로 표현했다.

한국에서 청룡음악상, 위스컨신에서의 영 컴페디션 우승을 차지했던 그였지만 여전히 바이올린은 만족스러운 게 아니었다 보다.

황 선생은 “미국에 유학와서 30-40대 정도 됐을 때 녹음하면 정말 내가 연주한 것이 맞나 할 정도로 훌륭한 소리가 났다. 어느 순간 악보를 보면 코드를 보고 연주해 보지 않아도 음악이 귀에 들리는 것처럼 펼쳐졌고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 느낌을 가질 수 있었다. 한국말로 하면 달인 것처럼 말이다. 모든 프로페셔널 연주자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악보를 꼭 연주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그들도 훌륭한 연주자들이다. 다시 말해 각자의 음악의 접근 방법이 다르다. 그러나 내가 연주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음악은 음식과 유사하다.” 고 그는 말한다. “모두 같은 재료와 양념을 가지고 요리해도 각 요리사의 취향에 따라 요리의 맛이 다르다. 음악의 맛도 그러하다. 너무 양념이 많아도 또는 너무 양념이 적어도 맛이 제대로 나지 않는다. 음악을 정말 웅장하게 연주해도 맛이 전혀 나지 않는 그런 음악가도 있다. 물론 어떤 관중들은 이런 웅장한 음악을 좋아하기도 한다.”

바이올리니스트 데이비드 내디엔과의 인연

데이비드 내디엔(David Nadien)이란 바이올리니스트를 좋아해 개인 레슨을 받을 간 적 있다. 그는 바이올린을 가르치던 첫날 당장 오케



스트라를 그만 두라 했다.

그러나 가정이 있고 가족을 양육해야 하고 집도 페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오케스트라를 그만 둘 수는 없었다.

그에 따르면 연주자들은 자신의 연주가 아닌 지휘자의 연주를 해야 한다. 지휘자들은 같은 음악도 자신의 스타일에 따라 다르게 연주하므로 하는 손짓과 지휘에 따라 음악의 강약을 조절하고 소리를 낮추거나 높여야 한다. 그렇게 지휘자의 의대로 연주하는 것이 뛰어난 오케스트라 연주원이기도 하다.

나중에 데이비드 내디엔을 구글로 검색해 보니 그는 1970년대 유명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을 1970년에 사임했다는 뉴욕 타임스의 기사가 있었다. 흥미로워 그의 기사를 스크랩 해두었다.

보스턴 심포니의 연주자의 일과

보스턴 심포니는 매일 하루에 5시간씩 연습한다. 일주일에 3곡을 연습해 연주하곤 하는데 연주가 없는 날은 오전, 오후 2차례 연습을 하고 연주가 있는 날은 오전만 연습한다. 보

통 연주회는 화,목,금,토 있는데 다음 주 연주를 위해서는 일요일에 5시간씩 연습하곤 했어야 했다.

젊었을 때는 따로 연습을 안해도 그때 그때 잘 대처해 연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2시간을 연습하곤 했다.

보스턴 심포니에 들어가게 된 계기
콩쿠르에서 1위를 해서 밀워키 심포니 부악장으로 2년째 재직하던 중 보스턴 심포니의 바이올리니스트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총 5차례에 걸쳐 시험을 봤다. 5번째 차례는 보스턴 심포니가 뉴욕에서 연주회가 있었기에 뉴욕에서 최종 시험을 치렀다. 당시 최종 시험에 남은 사람은 12명인데 그중에 2명이 최종적으로 남았다. 2명을 두고 향후 지휘자 내정자인 세이지 오자와가 최종 시험을 다시 봤다.

세이지 오자와는 추후 첫 보스턴 취임에서 아시안을 선택하지 않으려 했었다고 밝혔다. 그래도 그는 (아시안이 아닌) 황보엽 선생의 재능을 선택했다.

심포니에도 야 ▶▶7면으로 계속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중은치과, 중은치아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공인세무사 김창근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6면에 이어서

구의 메이저리그와 비슷한 것이 있다. 과거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시카고가 5대 심포니로 꼽혔으나 근래에는 클리블랜드 대신 샌프란시스코가 포함되었다. 야구로 치면 이 5대 심포니가 메이저리그다.

그림, 도자기 목공예

황보엽 선생은 그림에도 재능이 남다르다. 유화 및 수채화를 수준급으로 그릴 뿐만 아니라 집에는 손수 빚은 도자기가 많다. 게다가 예수가 못박힌 십자가의 조각도 직접 했다. 황 선생은 뭐하나 하면 집중해서 며칠간이고 그것에 집중한다고 했다. 바쁜 일과를 쫓개 그 같은 예술작품 창작활동을 겸했다.

바쁜 생활에 어떻게 이를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바쁘지만 그 시간에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바이올린을 레슨을 할 때 학생들은 학기 중에 연습을 했냐고 물어보면 학교 액티비티, 숙제에 쫓겨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한다. 여유가 있는 방학 때 연습했냐고 물어보면 똑같이 다른 것으로 바빠 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의 양이 문제라기 보다는 결국 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린 것이라는 점이다.

황보엽 선생의 바이올린

바이올린 하나는 응접실 피아노 위에 놓여 있었고 다른 하나는 다이닝 룸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바이올린은 좀 낡아보여 황보엽 선생의 바이올린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하며 바이올린을 집어 올렸다. “이것은 소리가 아주 힘있고 강하다” 며 “모든 바이올린은 소리가 각기 다르다” 고 말했다. 피아노 위에 놓인 바이올린은 소리가 아주 아름답다고 황 선생은 그 자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는데 바이올린이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강하게 숨을 쉬는 듯했다.

에필로그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길은 연주회를 끝나고 나오는 느낌이었다. 많은 이야기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갔지만 프로페셔널은 자신의 연주에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좀처럼 떠나지 않고 붙잡는다. 자신감은 스스로가 있다 없다 표현하는 자만이 결코 아니다. 필자에게 자신감이란 매일 시간을 들여 수천, 수만의 반복에서 오는 익숙함으로 해석됐다. 비터스윗 레인을 타고 나오며 표지판이 같은 글이지만 다르게 읽혔다. 고진감래(苦盡甘來).

editor@bostonkorea.com

8시간 대기 MA응급실 포화상태 위험수위 넘어

▶▶1면에 이어서
말하고 있다.

현재 주내 19,000 명의 병원 인력이 채워지지 않아 인력부족 사태가 정점에 있으며 지난 팬데믹 동안에 병원을 찾지 못한 환자들 이 계속 응급실을 찾고 있다. 또한 예년보다 빨리 시작된 플루 및 호흡기 질환도 이 같은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환자들의 대기시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응급실에서 대기하다 진료를 포기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환자의 비율도 급격히 늘었다. 최근 전국 조사에 따르면 응급실 대기중 떠난 환자의 수는 2017년의 1%에서 2021년 2%로 증가했다.

보스톤글로브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응급실 방문에 대해 질문한 것에 따르면 일부는 고통속에서 수시간을 기다렸다고 밝혔다. 최근 은퇴한 한 의사는 9월 뇌졸중으로 쓰러졌지만 병원 응급실에서 병상이 나기까지 20시간을 기다리기도 했다. 이 의사는 대부분의 시간을 임시 침상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현재 미전역 응급실 만원상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온 미시간 대학/VA 앤 아버 헬스케어 시스템의 응급실 전문의 알렉산더 쟀키 박사는 미국내 의료체계의 보호 독이 터진 것과 마찬가지로 밝혔다. “우리는 현재 벼랑 끝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벼랑 끝을 지난 것 같은 상황” 이라고 그

는 표현했다.

2020년 1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조사에서 병원이 85%정도 환자가 들어왔을 때 응급실 환자들의 미 표준인 4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주의 한 자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내 병원들은 현재 94% 환자율을 기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4시간이 넘는 대기 시간은 환자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발생시킨다고 밝혔다. 이 경우 환자에 밀려 의사와 간호사들은 빠르게 환자들을 진료하려 하다 보니 오진의 확률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병원의 환자입원율이 85% 이상인 경우 평균 응급실 대기시간은 6.58시간이었으며 이는 정상시의 2.42시간에 비해 훨씬 길었다.

응급실이 수년간 많은 환자로 힘들었지만 현재의 위기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30여년 간 병원에서 일해왔던 매스제너럴브리감의 응급부장 마이클 밴루엔 박사는 “처음 겪는 일” 이라고 말했다.

병원들은 일반적으로 퇴원해 이송되던 너싱홈마저 모두 가득 차면서 응급실 침상을 비우기 힘든 상황이 됐다.

쟀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21년에는 약 10%의 환자들이 중도포기하고 응급실을 떠났으며 2017년에는 4.3%였다.

매사추세츠 최대 병원인 매스제너럴브리감은 7월부터 10월까지 약 6%의 응급실 환자들이 의사를 보지않고 떠났다. 매사추세츠내 다른 병원들은 이 같은 자료제공을 꺼리고 있으나 대부분 같은 상황으로 추정된다.

랜돌프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아들의 호흡곤란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지난 9월 중순 사우스쇼어 병원의 응급실은 환자들로 가득 찼으며 계속 환자들이 찾아오고 있었다. 그러자 수간호사가 나와서 의사를 보기까지는 8시간이 걸려야 한다고 했으며 몇 번이나 나와 이를 이야기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냥 응급실을 떠나곤 했다. 그의 아들은 3시간이 지나서야 산소호흡기 및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으며 회복됐다.

이 여성은 대기 시간 동안 다른 환자의 상태, 검사 결과 등을 듣게 됐으며 의사들이 투입되는 과정 등도 모두 지켜보게 됐다. 이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 관련 주요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다고 병원에 항의기도 했다.

베이커 행정부는 경보를 울리고 주내 병원의 운영 가능한 침상수를 파악하도록 했다. 매주 주요 병원장들과 주정부가 회의를 갖고 필수적이지 않는 수술과 응급상황이 아닌 치료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hsb@bostonkorea.com

Kim Law Office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 에서 민여권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판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 (781) 932-0400 Fax: (781) 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하이텍 플러밍
HIGH-TEK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합니다.

Specialize in Plumbing, Heating, Air-conditioning, Nail Salon Ventilation.

Residential & Commercial, New Construction, Remodeling

레스토랑(Restaurant), 네일살롱(Nail Salon), 레지덴셜(Residential) 다수 공사 경력
Master PL #15210
Fully Insured

David : 617.828.2993
Kevin : 508.215.9211
hightek2010@yahoo.com

LOVE THE LORD, LOVE THE LOST

WELCOME

보스톤 주안에교회
IN CHRIST CHURCH OF BOSTON

주 일 예배 (SUNDAY WORSHIP) : 2 PM
금요일기도회 (FRIDAY PRAYER) : 9 PM (zoom)
새벽기도회 (MORNING PRAYER): 5:30AM (zoom)

전성우 목사 (Rev. Peter Jun) 978-835-6553
70 Colchester St. Brookline, MA 02445
@ Longwood T Station (D Line)

매사추세츠 첫 게이 여성 주지사 미 흑인 여성 검찰총장 승리

▶▶1면에 이어서

에서 첫 흑인 여성 법무장관으로 당선됐다. 특히 흑인 밀집지역인 락스베리에서 학교에서 감옥으로의 공식을 깨뜨리며 흑인 여성의 한계를 뛰어 넘었다. 캠퐸의 두 오빠들은 모두 학교에서 감옥으로 직행했던 상황이어서 그의 법무장관 당선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

또한 김 드리스콜 (Kim Driscoll) 샬럼 시장은 모라힐리와 러닝메이트로 뛰어 이번 부주지사에게 당선돼 미국내 사상 첫 여성 주지사 부주지사 동시 당선이란 기록을 세웠다. 드리스콜 부주지사 당선자는 린다 챔피언, 로버트 캠퐸 등의 한인사회 인사들과 친분이 있으며 국제선 모금행사에 참석했던 바 있다. 시민협회와 로버트 캠퐸씨는 선거기금 모금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었다.

특히 매사추세츠는 진보적인 성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10명의 여성정치인들만 당선된 바 있으나 11월 9일 하루만에 총 5명의 여성 정치인을 선택했다.

보스톤 소재 페어몬트 카플리 호텔에서 열린 당선파티에서 모라 힐리 주지사는 “오늘밤 작은 소녀들과 모든 LGBTQ 사람들에게 이야기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오늘밤 (나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던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공화당의 후보자였던 디일은

보스톤하버호텔에서 열린 선거 파티에서 “격차는 더 이상 추격하기가 불가능하다” 고 말하고 힐리에게 전화해 승리를 축하했다.

이번 선거로 매사추세츠는 민주당에 의해 모두 통치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상 하원은 진보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제 주지사마저 민주당의 손에 들어갔다. 심지어 매사추세츠 연방하원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 통치하에서 매사추세츠는 진보적인 정치를 쏟아내며 쪽 달리게 될지 아니면 내부 분란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지는 향후 관전 포인트다.

비록 공화당은 미 전국적으로는 일부 약진한 상태이지만 매사추세츠에서는 디일의 패배와 더불어 완전한 참패의 늪에 빠졌다. 특히 소수인 공화당은 온건한 보수와 트럼피즘으로 대변되는 극우보수로 양분되어 참여한 갈등을 벌여왔다. 온건한 보수인 찰리 베이커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오히려 민주당 소속 주민들보다 적은 점수를 줬었다.

결국 공화당은 늘 중도적 온건 성향의 후보를 주지사로 뽑아왔던 과거와 달리 극우 보수인 디일 후보를 경선에서 선출하며 스스로의 참패를 자초했다. 트럼프의 지지를 받은 디일 후보는 온건한 정책을 무시하고 백신 의무화 철폐, 사립학교 정부 지원 금지 등을 천명하며 선거를 이끌었다. 그의



주장은 집토끼인 극우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에게는 매력적이었지만 산토끼인 중도 및 온건한 민주당 유권자에게 확산되지 못했다.

이와 반면, 과거 강한 진보색깔을 보였던 모라 힐리 후보는 오히려 베이커 주지사와 유사한 톤의 중도성향의 정책 입장을 반영하며 산토끼 확보에 주력했다.

그녀는 당선 축하 후 일성으로 “나에게 표를 던진 주민들이 있고 나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던 주민들이 있지만 난 그 모두의 주지사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 고 밝혔다.

힐리 후보는 뉴햄프셔에서 태

어났으며 하버드를 졸업했다. 해외 프로 농구 선수로 활약하다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노스이스턴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 검찰청장보로 주 검찰청에 합류했다. 2014년 민주당 경선에서 민주당 중진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된 후 2연속 재임했다.

주 재무장관 선거에서는 현인 드보라 골드버그가 재선됐으며 감사에는 다이애나 디조글리오 (Diana DiZoglio) 전 주상원의원이 당선됐다. 주내 6개의 선출직 중 유일하게 남성인 윌리엄 겐빈 주무 장관은 4선에 당선되며 새로운 역사를 썼다.

캠퐸 법무부 장관 당선자는 엄마를 교통사고로 잃었으며 감옥에 간 아버지로 인해 친척과 포스터케어에 의해 자라났다. 그는 보스톤 라틴스쿨, 프린스턴, 그리고 UCLA 로스쿨을 졸업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며 변호사로 활동하다 보스톤 시의원 그리고 보스톤 시의장까지 맡았다.

지난 보스톤 시장 선거에서는 미셸 우 후보에게 패배했으나 이후 모라 힐리 법무장관이 주지사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되자 이 법무장관 후보에 도전해 결국 당선됐다.

editor@bostonkorea.com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향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태양자동차
Body & Repair/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리페어 워크/바디 워크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노스이스턴대학 자동차 손상평가 자격증 제도장 및 마감 자격증 프레온 가스 취급 자격증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q.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 mail: sunautobody@yahoo.com

HURAM 성형외과
현 재원 높은 고국방문 의료서비스
휴람 의료관광을 이용해보세요!

휴람성형외과
의학에 대한 보람은 시간, 돈보다 훨씬貴重합니다.
최상급 의료진은 최고의 재능을 가진 사람입니다.
최고의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최상의 의료진과 최상의 의료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최상의 의료기관입니다.

수술비 보수비 포함	수술비 보수비 포함	수술비 보수비 포함	HURAM 성형이벤트	
154만~	154만~	660만~	수술비-비용 20% 할인	
499만~	389만~	589만~	689만~	229만~
330만~	284만~	220만~	550만~	110만~

김수남
HURAM 성형외과 대표원장

인빠지는 뱃살도 울고가는 최고의 복근운동 TOP3

혼자하기 정말 싫은 운동 중 하나가 복근 운동이죠? 저도 혼자 할 때는 다른 운동 할 때보다 더 안가더라구요. 그렇지만 우리 척추건강과 허리보호를 위해 필요한 코어힘을 기르려면 반드시 해야하는 운동 중 하나인데, 복근운동도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해보면 어떻게 해서 준비해봤어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동작들은 최근 제 인스타그램(yogasong_hayeon)과 영어유튜브 채널에서 릴스와 쇼트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어요. 생활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신나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 영상, 요가 영상까지 다양하게 매일 부지런히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꼭 찾아보시고 할 수 있는 동작들은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운동은 유튜브 채널 'Yoga Song Hayeon' SHORT 플레이스트가셔서 TOP3 abs workout 를 찾아 음악과 함께 반복해보세요. 처음부터 잘 안된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달동안 주 3회만 반복해 하셔도 아랫배는 물론 옆구리라인도 예쁘게 들어갈 거예요.

TIP! 처음엔 수건도 잘 안돌아가고 무릎도 접었다 펴는게 어색할 수 있어요. 단단하게 코어를 만드는 과정이니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반복해 연습해주세요!



3단계 두 다리를 다시 뒤로 보냈다가 이번엔 왼쪽으로 무릎을 구부려 오블릭 크런치를 시도합니다.

4단계 다시 중앙으로 다리를 뒤로 뺀고 이번엔 오른쪽으로 크런치해주세요.

5단계 반복하며 강한 옆구리와 복부의 자극을 느껴봅니다.

TIP! 두다리를 모아 옆으로 보내는게 힘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앞뒤로 움직이는 것만 연습하셔도 충분합니다. 조금씩 코어의 힘이 길러지면 어려운 동작들도 수월해지는 시점이 올거예요!



은 물론 근력 향상, 유연성 강화, 체형 교정, 스트레스트 해소, 우울증 개선의 효과

3. 꾸준한 개인 회원관리로 지속적으로 생활속 운동루틴을 이어가도록 지도

4. 모니터를 통한 실시간 '자세교정' (1:1 개인레슨과 그룹수업 모두 가능)

5. 첫 수업 체험 전, 선생님과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개인의 목표와 NEED 전달, 학생 만족도 극대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 나 이메일 connect@yogafullness.life 로 신청해주세요.

하연쌤과 함께 하는 매주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온라인도 못사신 라이브 온라인수업으로 선생님과 소통하며 직접 자세교정도 받고 싶다면? 매주 온라인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수업들 신청하고 싶어요. '기적의 다이어트 요가와 필라테스' 수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카톡아이디 yogafullnesslife로 본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신청해주세요.



1. 오버 언더 크런치 (Over Under Crunches) : 상하복부 강화, 뱃살 감량

1단계 수건 하나를 들고 어깨 너비로 잡아 무릎을 세워 앉습니다.

2단계 무릎을 가슴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며 앞에 있는 수건을 허벅지 밑으로 보냅니다.

3단계 다리를 살짝 펴서 다리 밑에 있던 수건을 다시 발을 넘어(지나) 가슴 앞으로 가져옵니다.

4단계 복부를 강하게 끌어당기며 수건을 위 아래로 움직이며 크런치를 반복합니다.

2. 플랭크+오블릭 니트(Oblique Knee Tuck)

1단계 매트를 치우고 수건을 접어 발 밑에 내려놓고 플랭크 자세를 취해주세요.

2단계 수건을 이용해 무릎을 가슴쪽으로 끌어당겨서 크런치해줍니다.

하연쌤과 함께하는 라이브 ZOOM요가&필라테스

ZOOM요가&필라테스 클래스의 장점

- 1. 남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다.
- 2.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단기간 '체중감량'

송하연, 요가치터/요가풀니스라이프 대표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s://bit.ly/3w9ks4u> 카카오톡 아이디 yogafullnesslife 이메일 주소 connect@yogafullness.life 홈페이지 www.yogafullness.life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형제 떡집

모든 종류 떡 주문 가능!



GRAND RE-OPEN
축 재개업

영업 시간
달리버리: 상황에 따라 결정됨
픽업: 상황에 따라 결정됨
주문: 일주일 내내

CEL: 978.343.6080
CEL: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2022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Experts



SPONSOR CONTENT / REAL ESTATE EXPERTS



Jason Jeon
 Compass
 Cambridge, MA | 617.642.5670
 jeon.j@compass.com

Jason Jeon brings over a decade of experience and excellent customer service to his real estate work, as well as a commitment to listening closely and providing follow-through. He builds strong relationships with his clients, and maintains those relationships through genuine and effective communication. He also provides strategic real estate advice, data-driven marketing solutions, and transaction management service to his clients across many markets surrounding Boston. Jeon utilizes a team of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to assist with his clients' buying and selling needs, including stagers, painters, designers, handymen, and inspectors.

His business is built on dedication, credibility, consistency, and determination, while also emphasizing his ability to cater and adapt to all of his clients' real estate needs. Jeon is committed to listening to his clients and using his best negotiating skills to ensure the best outcome in every transaction.

BOSTONMAGAZINE.COM 111

Boston Magazine's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선정



Jason Jeon

제이슨 전
Vice President

jason.jeon@compass.com

617.642.5670
compass.com

그동안 많은 분들의 성원과 격려로 2022 보스톤 매거진의 Top Producing Real Estate Experts 중 한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컴파스에서 제공하는 고객 맞춤형 마케팅 전략과 최고의 정보기술과 함께 헌신(Dedication), 믿음(Trust), 결단력(Determination)을 기반으로 고객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거래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ompass i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All material presented herein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Information is compiled from sources deemed reliable but is subject to errors, omissions, changes in price, condition, sale, or withdrawal without notice. No statement is made as to the accuracy of any description. All measurements and square footages are approximate. This is not intended to solicit property already listed. Nothing herein shall be construed as legal, accounting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outside the realm of real estate brokerage.

메타 대량 해고, 보스톤 테크인력 및 경제 타격 줄 듯

켄달 스퀘어 3배 확장 계획, 일단 멈춤에서 원점 복귀가능성도
케임브리지 인근 스몰비즈니스에도 상당한 영향 예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페이스북에서 개명한 메타는 9일 전 직원의 13%에 달하는 1만1천 명의 직원을 대량해고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불과 몇 달전 급격하게 확장하던 당초 계획에 커다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메타는 지난 7월, 50비니 스트리트 (Binny St)에 있는 건물 모든 층을 임대해 당초 규모의 3배로 확대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뚜렷한 재개 일정 없이 일단 중단했다.

현재로서는 케임브리지에 근무하고 있는 500여명의 페이스북 근로자 중 몇 명이 이번 해고에 포함됐는지 정확치 않다. 케임브리지 근무 직원의 대부분은 대부분이 엔지니어 또는 테크 근로자였으며 일부는 메타가 추진하던 “메타버스” 관련 업무를 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04년 마크 저커버그가 하버드 학생이였을 때 창업했지만 회사는 실리콘밸리에서 운영됐으며 2013년이 돼서야 보스톤에 페이스북 지점이 생겼다. 인원은 꾸준히 증가했고 대부분의 메타의 보스

톤 근처 직원들은 케임브리지 100비니 스트리트 건물과 윈 브로드웨이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책임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번 인원감축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했다.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메타는 급격하게 성장하자 세상은 급격하게 온라인으로 옮겨 갈 것으로 생각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메타버스에 투자를 집중했었다.

저커버그는 “불행하게도 세상은 내가 예측했던 방향으로 향하지 않았다. 온라인 커머스는 과거의 경향으로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 침체와 경쟁 그리고 광고의 손실은 매출을 기대이상으로 낮췄다.”고 편지를 통해 밝혔다.

그는 메타가 부동산 쪽을 축소할 계획이며 원격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따로 배정된 책상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사무실 확장계획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메타는 그동안 메타버스에 집중 투자해 왔으나 광고수익이 급감하면



서 해고와 투자 축소를 선택하게 됐다. 메타는 지난 여름 보스톤글로벌와의 인터뷰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메타버스 등을 작업하는 리얼리티 연구실(Reality Labs)을 보스톤 지역에서 확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메타는 올해 메타버스에 90억달러의 투자손실을 기록하고 있

다. 알티미터 캐피탈의 브래드 거스트너는 저커버그와 메타 이사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를 해당 50억 달러 이상 지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

패트릭 벤치, 보스톤 홍보회사 벤치마크스트레티지스 창업자는 메타의 켄달스퀘어 확장 계획 중단은 이곳에 근무하는 테크관련 종사자들에게

계만 찬서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음식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몰비즈니스에게도 파급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해고된 직원들이 보스톤에서 세상을 바꾸는 테크놀로지를 일궈내는 차세대가 될 수 있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hsb@bostonkorea.com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Ch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10월 CPI, 9개월만에 최소폭 7.7% ↑ ...인플레이 속도 느려졌다

회견서 "최종금리, 지난번 예상보다 높아질 것...갈 길 멀다" "美경제 연착륙 여전히 가능하나 지난 1년간 길 더 좁아졌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고공행진하던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음을 시사
하는 물가지표가 나왔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쉬지않고
공격적인 금리인상을 단행하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
정책 운용에서 다소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 노동부는 10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보다 7.7% 올랐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올해 1월 이후 최소폭 상승으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
치 7.9%를 하회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역시
전문가 전망치(0.6%)보다 낮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
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
월보다 6.3%, 전월보다 0.3% 각각 오
른 것으로 나타났다.

근원 CPI 역시 시장 전망치(전년
동월 대비 6.5%, 전월 대비 0.5%)를
하회했다. 전년 동월 대비 근원 CPI
상승률은 지난 9월 6.6%로 40년 만의
최고치를 찍은 바 있다.

최근 3개월간 하락세를 보이던 에
너지 물가가 다시 오름세로 전환했
지만, 식탁 물가의 급등세는 약간 누
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물가지수는 전월보다
1.8%, 전년 동월보다 17.6% 각각 올
랐고 이 중 휘발유는 전월보다 4.0%,
전년 동월보다 17.5% 각각 급등했다

·
식료품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0.9% 치솟았으나, 전월 대비 상승률
은 0.6%로 9월(0.8%)보다 약간 내려
갔다.

주거 비용은 여전히 큰 폭의 오름
세를 보이며 전체 CPI 상승분의 절
반 이상을 차지했다. 주거 비용은 전
월보다 0.8% 올라 1990년 8월 이후 최
대폭 상승을 기록했고, 전년 동월 대
비로도 6.9%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
다.

반면 중고차(전월 대비 -2.4%)와
의류(전월 대비 -0.7%), 의료비(전
월과 동일)가 진정세를 보인 덕분에
근원 CPI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노동부는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물가 급등세가 다소
누그러졌다는 이날 발표는 물가 안
정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통화정책
을 집행하는 연준에 어느 정도 안도
감을 줄 것으로 보인다.

CPI 수치가 발표된 후 시장에서는
연준이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0.75%
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올릴 것
이라는 전망이 더욱 많아졌다. 최종
금리가 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
측도 나온다.

연준의 금리인상이 속도를 줄일
것이라는 기대 속에 이날 미국채 금
리와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뉴욕증
시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개장 직전 시간외 거래에서 다우
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3%, 스탠
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1%, 나스닥 지수는 4.2% 각각 급등
중이다.



제품 파릴 연준의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9월 점도표(연준 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을 나타낸 도표)에서 제시된 4.6%를 넘어 5%에 육박할 가능
성을 시사해 연준의 금리완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빅테크 감원 물결 속 실업수당 청구건수 7천건 늘어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빅테크 기업들의 잇단 감원 발표
속에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미국인들
이 늘어나고 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10월 30일~11
월 5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보다 7천 건 증가한 22만 5천 건
으로 집계됐다고 10일(현지시간) 밝
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22만 1천건)를 상회한
결과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
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천
건 증가한 149만 건으로 집계됐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평균 21
만 8천 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여전
히 노동시장이 탄탄하다는 점을 시

사한다고 WSJ은 평가했다.

그러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
준)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이로 인한
경기둔화 우려로 빅테크 등 주요 기
업들이 잇따라 감원 계획을 내놓고
있어 실업자 증가세가 빨라질 것이
라는 우려도 나온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은
전날 1만 1천 명을 해고한다고 밝혔

좋은사람들
www.jouneye.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 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처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성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 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벗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상원 의석, 이대로면 민주 49 공화 50...50대50이나 49대51이나

NBC "하원 공화 222석으로 과반, 민주 213석...주지사는 공화 24 · 민주 22 개주"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 개표 이틀째인 9일 (현지시간)에도 선거 결과가 명확히 나오지 않은 가운데, 예상과 달리 공화당 압승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에서 공화당은 다수당이 되겠지만 여론조사 등을 통한 예상보다 민주당과의 의석 격차는 작을 것으로 전망되며, 상원에서는 3개 주에서 초접전이 벌어지면서 조지아주에서 결선투표가 치러지는 다음 달 초에야 승패가 결정될 예정이다.

CNN은 전날 밤 11시 30분 기준으로 하원에서 공화당이 209석, 민주당이 191석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48석, 공화당이 4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ABC 방송은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48석씩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상원에서는 민주당 48석, 공화당 49석을 예상했고 하원에서는 공화당 207석, 민주당 189석을 전망했다.

NBC 방송은 이날 오전 1시 30분 기준 하원에서 공화당이 222석을 차지해 과반을 차지하고 민주당은 21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원 과반 확보를 위한 '매직넘버'는 218석이다.

이 방송은 상원은 민주 48석, 공화 49석을 각각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지사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24개 주, 민주당이 22개주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측됐다. 오리건 · 네바다 · 애리조나 · 알래스카 주에서 승패 예상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오리건과 애리조나에서는 민주당, 네바다와 알래스카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앞서고 있다.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겠지만, 당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보다는 민주당이 선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CNN 방송은 하원에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35석 중 24개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11개 지역에서 공화당 후보가 앞서 있다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 · 오리건 · 네바다 · 애리조나주 등에서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인 만큼 명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상원의 경우에는 승자를 가늠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경합주인 위스콘신주에서는 공화당 소속 론 존슨 의원이, 펜실베이니아주에



연방 국회의사당, 보기에 따라 새벽으로 보일 수도 있고 석양으로 볼 수도 있다

서는 민주당 존 페터만 후보가 각각 승리를 확정했다.

그러나 주법상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하도록 규정된 조지아주에서는 내달 6일 민주당 라파엘 워녹 현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허셜 워커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를 예정이다. 99% 개표 기준 민주당 워녹 의원은 49.2%, 공화당 워커 후보가 48.5%를 각각 득표했다.

애리조나주는 7% 개표 중 민주당 마크 켈리 후보(51.4%)와 블레이크 매스터스(46.4%) 사이에 접전이 벌어지고 있고, 84%가 개표된 네바다주에서도 공화당 애덤 랙셀트

(49.4%) 후보와 캐서린 콜테즈 매스토(47.6%) 후보 중 확실한 승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들 두 접전 지역에서 현재 득표율 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 수는 49석 대 50석이 된다.

미국 상원에서는 부통령이 상원 의장을 맡으므로 민주당은 절반 의석인 50석을 확보하면 다수당 위치를 유지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가 절반 지났을 때 치러지는 중간선거는 정권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졌지만 잘 싸웠

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번 선거 결과가 임기 후반기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중간선거 결과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이 예상한 "레드 웨이브"(공화당 압승)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미국을 위해 좋은 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화당으로서는 수치상으로 이기고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herora@yna.co.kr

THE PRO REALTY GROUP

수잔 부동산

풍부한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한인 부동산 회사

T.339.224.1512

245 First Street Riverview II 18th floor Cambridge, MA02142

Susan Lee
Broker & Principal

susan@proreality.group
Kakao ID : susan1223

- 1

탁월한 협상
오랜경험과 전문적인 팀워크로 구성
- 2

바이어, 셀러
전문적 지식과 정확한 서비스로
고객 여러분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
- 3

이주자 상담
타주 & 한국 투자 상담
- 4

전문적인 일처리
30년 경력 부동산전문 변호사 파트너와
여러분의 재산을 지켜 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경찰 지휘 · 감독 권한 없다" 이상민 행안장관 발언 논란

6월 경찰국 추진할 땐 "지휘 · 감독할 책임과 권한 있어" 논란 일자 행안부 "경찰국은 치안 지휘 · 감독과 무관한 조직"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경찰에 대한)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으로부터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과 책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일체의 지휘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다"면서도 "도의적이나 정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다"고 덧붙혔다.

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이형석 의원으로부터 '행안부는 경찰청을 지휘 · 감독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지휘 · 감독 권한이 지금 없다"고 답했다.

경찰로부터 치안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8월 출범한 행안부 내 경찰국은 인사와 경찰 지원 업무를 하며 "치안과는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5개월 전인 지난 6월에는 달랐다.

이 장관은 경찰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에 대한 지휘 · 감독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규정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치안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더라도 경찰청의 업무가 과연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휘 · 감독할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이

라고 말했다.

이에 경찰 통제에 대한 비판을 무릅쓰고 경찰국까지 만든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발언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참사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을 받은 이 장관은 야당의 사퇴 압박에도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행안부는 진화에 나섰다.

10일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이 장관이 경찰국 신설 추진 당시와 반대되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경찰 지휘 · 감독 권한을 행사하려면 검찰과 징계권이 필요하고 최소한 경찰로부터 경찰업무 보고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검찰과 징계권은 법률 개정사항으로 즉시 실시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규칙' 제정시 업무 보고 등의 의무라도 포함하려 했지만 강한 반대 의견이 있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휘규칙에는 법령 제정 · 개정 관련 보고, 법령질의 등에 관한 사항 등이 있을 뿐 치안상황 지휘 · 감독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6월에 의도했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지휘규칙 및 경찰국이 만들어졌고 결국 행안부 장관에게는 이번 이태원 사고와 같은 치안상황에 대한 지휘 · 감독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수행할 조직과 권한 및 보고체계가 없게 됐다"면서 "현재의 행안부 경찰국은 출범 당시부터 치안상황을 지휘 · 감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

으며 이와 관련한 보고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경찰국은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국은 치안상황 지 ykim@yna.co.kr

이태원 참사 그날 밤 용산구청장은 어디에 있었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이태원 참사 직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유관기관 간 현장 대책회의에 불참한 채 귀가한 정황이 공개되는 등 행적과 관련한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10일 용산구와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직후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여러 차례 주재한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재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황판단회의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는 행정안전부 고위 공무원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관련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10월29일 오후 11시 44분부터 이튿날 오전 6시 35분까지 6차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장, 용산소방서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여했지만 박 구청장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도 나왔다.

용산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필수 참석 대상은 아니며, 회의에 참석하

라는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며 "박 구청장 대신 보건소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구청장이 소방 대응 최고 수위인 3단계가 발령 중이던 10월30일 새벽 귀가한 정황까지 공개되면서 부실 대응했다는 비판은 더욱 커지고 있다.

10일 공개된 폐쇄회로TV(CCTV) 화면에는 박 구청장이 10월30일 오전 5시 38분께 홀로 귀가해 약 3시간 뒤 다시 집을 나선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 구청장의 자택은 이태원 퀴논길 부근이다.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NOV. 11th - NOV. 17th, 2022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ID : @hmart_ma



A NEW KOREAN-AMERICAN CLASSIC: SEOUL CHEESESTEAK

You can't go wrong with this riff on an iconic Philly cheesesteak which substitutes traditional beefsteak for Korean sweet marinated meat, or bulgogi! Honor your loved ones on Veterans Day with this comforting cheesy meal that tastes even better with others. 재향 군인의 날을 기념하며, H 마트와 함께 불고기로 더욱 맛있어진 서울 치즈스테이크를 만들어보세요!



<p>Florida Pomelo 플로리다 포멜로 LB \$1.99</p>	<p>Pomegranate 석류 LB \$2.99</p>	<p>Hachiya Persimmon 연시감 BOX \$29.99</p>	<p>Fuji Apple 후지사과 LB \$1.99</p>	<p>Ginger 생강 LB \$1.99</p>
<p>Malanga 말랑가 LB \$1.29</p>	<p>Cilantro 실란트로 EA \$1.29</p>	<p>ZESPRI Packed SunGold Kiwi 제스프리 섀골드 키위 2 LB/PKG \$7.99</p>	<p>SOONYEOWON Tofu 수녀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1.49</p>	<p>Sweet Potato 고구마 LB \$2.49</p>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p>Fresh Boneless Beef Ribeye Steak 생 뼈없는 소등심 (스테이크용) SIZE 10 UP/LB \$12.99</p>	<p>Fresh Beef Flank Steak 생 소 앞치마 양지 (육개장용) LB \$9.99</p>
<p>Fresh Pork CT Butt Chunk 수육용 생 돼지목살 LB \$5.99</p>	<p>Fresh Boneless Chicken Thigh 생 뼈없는 닭 사태 LB \$2.99</p>
<p>Frozen Beef Short Plate 냉동 소 삼겹 양지 SLICED/LB \$12.99</p>	<p>Marinated Pork Single Belly 양념 돼지 삼겹살 LB \$6.99</p>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p>Frozen Unagi Kabayaki 우나기 10 OZ/PKG \$11.99</p>	<p>Frozen Loligo Squid 한치 20-25 CM/LB \$5.99</p>
<p>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 26-30 SIZE/LB \$6.99</p>	<p>Headless Tiger Shrimp 머리없는 타이거새우 21-25'S/LB \$10.99</p>
<p>Frozen Spicy Pollack Soup 깨끗하게 손질한 한마리 통태탕 1.3 LB/PKG \$9.99</p>	<p>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p>

FRISAT/SUN ONLY 금, 토, 일 한정판매

SMART CARD MEMBER ONLY

<p>ASIAN BEST Jasmine Rice 아시아인 베스트 자스민쌀 25 LB \$19.99</p>	<p>KWANGCHEON Green Tea Seaweed /Seasoned Laver 광천 녹차김/청파래김 선물세트 0.71 OZ X 10 EA BOX \$12.99</p>
<p>K TOWN Sliced /Tteokbokki Rice Cakes 케이타운 떡국/떡볶이 떡 2.2 LB \$2.99</p>	<p>HAIJO Pancake/Frying Mix 해오름 부침/튀김가루 2 LB \$1.99</p>

<p>ORGANIC FARM Organic Sweet Rice 유기농장 유기농 찰쌀 15 LB \$37.99</p>	<p>CHUNGJONGONE O'Food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오'푸드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잘 고추장 6.6 LB \$14.99</p>	<p>COOK100 Appa Soup Base Tablet 쿡100 아빠육수 ANCHOVY /HOT PEPPER 3.96 OZ \$7.99</p>	<p>Three Crabs Brand Fish Sauce 삼계 순멸치 액젓 24 FL OZ \$5.99</p>	<p>HAIJO Frozen Seasoned Pollack Roe 해오름 명란젓 2.2 LB \$22.99</p>
<p>PULMUONE Original Japanese Style Udon Noodle 풀무원 사누끼 우동사리 2.53 LB \$4.99</p>	<p>HAIJOREUM Korean Style Noodles - Somen 해오름 막국수 5 LB \$4.99</p>	<p>GREEN LAND Rice Paper 그린랜드 라이스 페이퍼 22 CM/12 OZ \$2.49</p>	<p>HAIJO Canned Whelk 해오름 골뱅이 캔 14.1 OZ \$5.99</p>	<p>DONGWON Luncheon Meat 동원 런천미트 12 OZ \$3.49</p>
<p>HAITAI Matdongsan Peanut Crunch 해태 마동산 10.58 OZ \$3.99</p>	<p>HAIJOREUM Peeled Roasted Chestnuts 해오름 껍질 깎 맛밤 3.52 OZ 2\$3 FOR</p>	<p>HELLO HOME Stainless Square Net 헬로홈 스텐 사각 채망 (싱크대 거치용) 29 X 19 X 11 CM \$9.99 \$6.99 EA</p>	<p>Dish Rack (Grey) 꽃샘 한국산 자동 물빠짐 식기건조대 (그레이) 43.5X33.3X16.5 CM \$30.99 \$4.49 \$23.99 MADE IN KOREA/EA</p>	<p>HELLO! Vinyl Gloves 헬로! 비닐 위생장갑 200 PCS/PKG \$2.99</p>

Taste the tradition of **Bibigo Kimchi** at H Mart
H Mart에서 비비고 김치를 맛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사장 나원태
617.642.3156
President
won@bostonpremierrealty.com



이사 이제봉
781.654.5281
South Shore Branch Manager
jeblee@bostonpremierrealty.com



Steve Kwon
508.326.6285
Director of HR/Customer relationship
Steve@bostonpremierrealty.com



Kathy Song
413.313.4165
Manager of Hadley Branch
kathysong2019@gmail.com



준한
617.586.9192
Business Development Director
jhan@bostonpremierrealty.com



신보경
508.361.6064
Lexington Branch Manager
boshin@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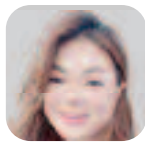
크리스틴 손
773.968.2651
Lexington Branch Manager
ch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이현주
401.935.3397
hyunju@bostonpremierrealty.com



다이애나 김
617.271.2037
diana@bostonpremierrealty.com



줄리 전
978.494.2043
julie@bostonpremierrealty.com



오성빈
978.505.3736
osb@bostonpremierrealty.com



Nikkie Park
617.447.0591
nikkiepark@bostonpremierrealty.com



이준균
617.543.5728
jun@bostonpremierrealty.com



지나 최
978.866.3248
gina@bostonpremierrealty.com



피터 주
617.780.7839
peter@bostonpremierrealty.com



사라 유
617.838.5787
sara@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99.1214
hhan@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231.0316
shirley.zhao@bostonpremierrealty.com



최진민
617.877.0387
jinchoi52@bostonpremierrealty.com



마샤 송
213.503.0397
marcia@bostonpremierrealty.com



미키 최
413.507.1402
mickichoi@gmail.com



레이첼 김
617.852.7485
rachelkim@bostonpremierrealty.com



Ritika Chopra
617.697.1191
rchopra@bostonpremierrealty.com



이영순
781.800.3412
bostonyi@bostonpremierrealty.com



임현미
781.690.4309
hyunmi@bostonpremierrealty.com



황수진
617.538.6973
sujinwang1@gmail.com



Xian Dole
617.522.8979
xian.dole@bostonpremierrealty.com



Jason Chen
978.277.8439
so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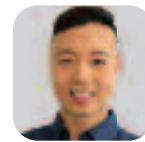
비비안 유
617.935.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9952
nancywang6000@bostonpremierrealty.com



차민영
651.402.5194
minyoung@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0.2923
jun.wang@bostonpremierrealty.com



Lili Wang
617.938.7212
lege@bostonpremierrealty.com



Henry Nguyen
617.803.8341
henry@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8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Lu Jiang
240.449.0117
jianglubox@gmail.com



그레이스 정
617.960.6655
grace.jeong@bostonpremierrealt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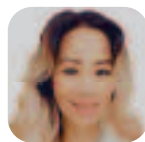
김기태
617.721.8088
k.keetae@bostonpremierrealty.com



손창배
617.913.3369
so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088
becca@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24.56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Benjamin Fiorentino
617.775.9583
ben@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mma
978.873.0076
alex@bostonpremierrealty.com



Sasha Shapiro
617.610.9796
alex@bostonpremierrealty.com



이상현
857.260.0434
sanglee@bostonpremierrealty.com



앤드류 리
857.540.1588
andrew@bostonpremierrealty.com



제이크 김
781.956.0409
drjakekim@bostonpremierrealty.com





PREMIER WORKS

좋은 사람들이 우리집처럼 여기고 정성껏 일하는 PREMIER WORKS. 각각 다른 레벨의 일에 맞는 인력이 투입되어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인력이 공정 관리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합니다.

홈 리노베이션, 홈 익스텐션, 핸디맨잡, 배관, 전기, 난방, 커머셜/식당 디자인 시공.

“ I just wanted to say thank you for a job well done. The floors look terrific! I know the project was a challenging one, but I'm happy to say you and your team more than met the challenge. In addition, a concern I've had with contractors is not following up with loose ends. I'm happy to report all follow up requests were completed in a timely manner. In short, I highly recommend and will continue to use Premier Works for all of my flooring needs!

Sincerely, Mr. M. Malden, MA ”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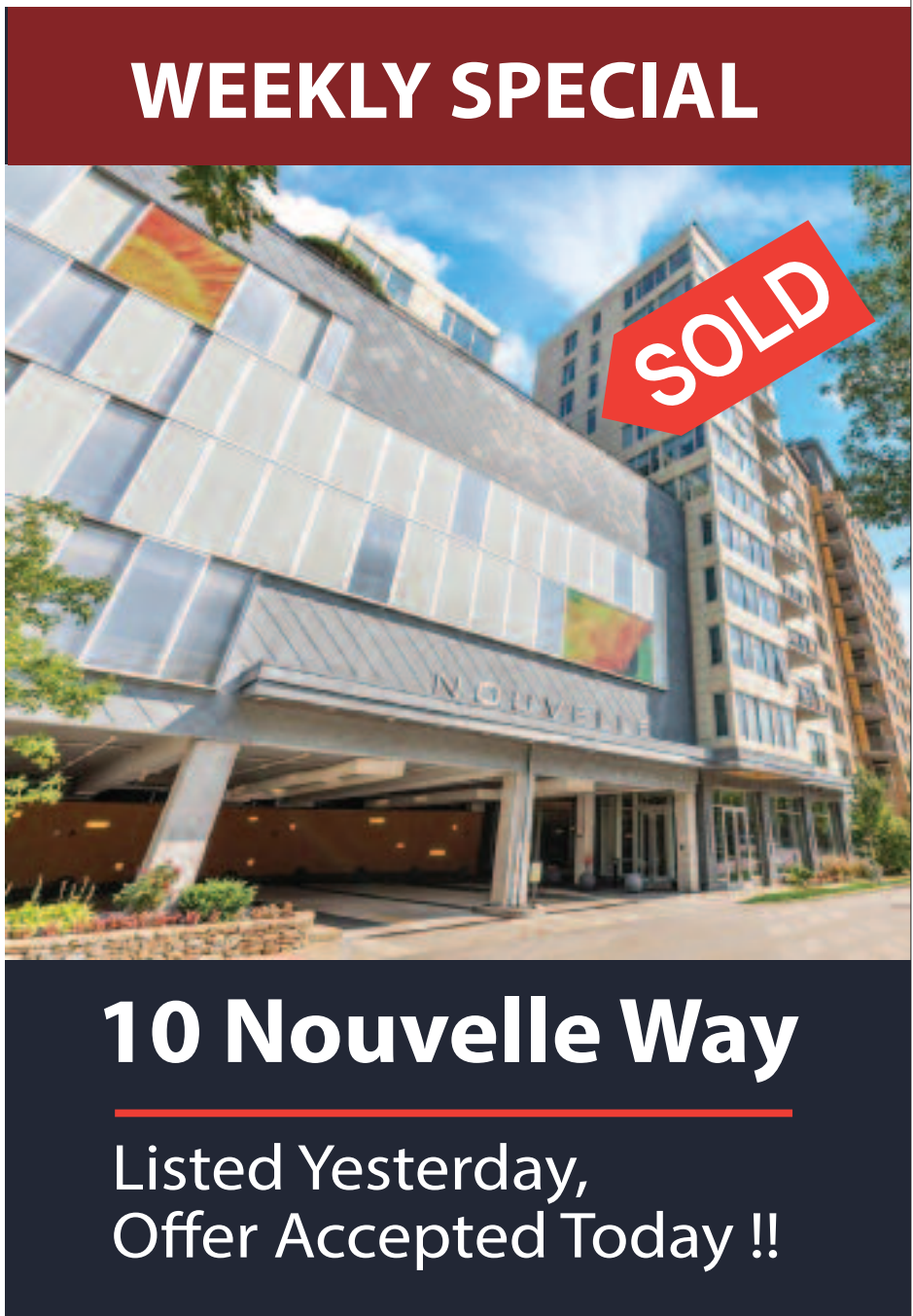


Property Management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건물을 관리해 드립니다. 건축가, 부동산, 건축시공 전문가들이 함께 관리 합니다. All size condo, single family, multi family, commercial, Hands Free, All in One Service

렌트비 관리, 유지관리, 테넌트관리

Premier Realty Group
 617.515.1162
 info@bostonpremierrealty.com



WEEKLY SPECIAL



10 Nouvelle Way

Listed Yesterday,
 Offer Accepted Today !!

40 Celebrating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11/10/22 - 11/17/22

화우당
볶음요리



"신선한 바다"를 그대로 담은

Reg. \$7.99 12.69 OZ/PKG

\$5.99



LIMIT 2

녹차가 들어가 더욱 담백하고 맛있게!

광천김 녹차 도시락김

0.17 OZ X 24 EA/PKG

Reg. \$10.99

\$6.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간단하고 신속한

주택 융자

안녕하십니까 **켈리 김** 입니다.
주택에 관한 모든 융자들 도와 드립니다.

낮은 이자율 · 캐쉬아웃
개인 소득 확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번호가 필요 없는 프로그램
ITIN 번호만 필요한 프로그램
바로 연락 주세요.

“

Thank you so much for your help! 거의 포기하고 있던 참이었어요
그때 다른 회사에서 진행한지 5개월이 넘었어도 도저히 끝이
안보였거든요 그런데 열흘도 안되서 모든게 거의 결정되고 시작한지
한달여만에 이사했으니 정말 빠른진행과 더불어 너무 친절하고
정확하게 도와주신 Kellie Kim Thielen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다시 드립니다!

- Hun Pyo C.

”



켈리 김

한국어, 영어 가능

주택대출 담당 - nmls #2027241

CT, FL, MA, ME, NJ, NH, RI, TX 라이선스.

이메일: kkimthielen@radiusgrp.com

전화: 617.733.5014

한국어 웹사이트: info.radiusgrp.com/ko/kthielen

English Website: www.radiusgrp.com/kelliekimthielen



600 Longwater Drive, Suite 107, Norwell, MA 02061

Kellie Kim Thielen, Loan Officer - NMLS # 2027241; Licensed in CT, MA, ME, NH, NJ, RI, TX. Employed by radius financial group inc., NMLS #1846., CT 17213, FL Lender/Servicer MLD309/MLD1562; MA Lender/Broker MC1846 ME SLM6596; NH 7986-MB; NJ Residential Mortgage Lender License and RMLA-Licensed Mortgage Servicer Registration 1846; RI Licensed Lender/Broker 20031544LL/20183611LB; TX SML Mortgage Banker Registration Equal Housing Lender.

이 광고는 한국연립은행의
정부보증 수속을 지원받아
발사되었습니다.

한국연립은행
Korea First Bank

오후 5:30 곧 도착! 주차하고 갈게!!!

오빠 어디야? 난 다 왔어~ 오후 5:30

서로의 위치는 확인했지만 눈앞의 위험은 확인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보행 중 교통사고 60% 이상이 스마트폰 사용 중 발생합니다.

국인 김규연 님이 제정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

성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성당

St. Daveluy Church of the Nazarene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성 안두안 다블뤼 보스톤 한인 성당은 새 입교자를 위한 교리반을 9월 중순에 시작합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스톤 천주교 한국학교 교사 / 학생 모집
[교사 모집]
미국에 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정체성과 한국어를 가르칠 선생님을 모집 합니다.
[2022-2023 등록 안내]
등록금 330불+등록비 20불
(한 자녀 330불, 두 자녀 640불, 세 자녀 950불)
*8월 14일까지 등록시 등록비가 면제됩니다.
문의: 교장 전화: 617-610-2743
이메일: BostonCatholicKoreanSchool@gmail.com

45 Ash St. Newton MA02466 /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합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경렬

HANNDYMAN ANDY 핸디맨 앤디

플러밍, 변기, 욕조, 전기
상가, 가정집, 신, 증축
목수일, 마루, 타일 etc.
식당 후드팬,
식당 장비 수리

상담문의 **508.381.9519**
508.685.7688

CHOISIGNS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ing,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보스톤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주일학교: 오후 2시
중고등부: 오후 2시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6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617.969.5803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예수님을 알고
그를 알리자

〈예배시간〉
주일: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0: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우스터한국교회: 토 9:30~12:30

114 Main St. Worcester, MA 01608
Fax: 508.799.4488
http://workmc.org

담임목사: 김현태
617.780.4178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mchae@dependableusa.com
web: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골프 레슨

최성조 프로

Master Golf Professional
매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sj.usgtf@gmail.com

857.600.6755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가짜뉴스’는 범죄입니다

양의 가면을 뒤집어서도 늑대는 늑대일 뿐입니다.
뉴스의 형식을 빌려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710) 목돈 아니면 연금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서 이자율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이자율 상승은 모든 일반인에게도 영향이 있지만, 특히 은퇴 시점을 목전에 둔 직장인에게 매우 심각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만 한다. 은퇴하는 날짜에 따라서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은퇴자금(Pension)이 20%에서 30%까지 감소(Senior KFC Executives Opt for Retirement as Interest Rates Hit Pension Payouts, Heather Haddon, WSJ, Oct. 15, 2022)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결정은 개인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본인의 건강, 집안의 평균 수명, 가족의 경제 상황, 부부의 전체 은퇴 자금,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이 있다.

은퇴하기로 결정했다면 은퇴 자금을 목돈(Lump Sum)으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다달이 지급되는 연금(Annuity)으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선택은 본인은 물론 가족 특히 배우자에게도 영향이 있기에 심사숙고해야 한다. 또한 이런 결정은 번복(Irrevocable one-time deci-

sion)할 수가 없다.

어떠한 선택이든 각각 위험성이 존재한다. 사람마다 감정적(Emotion)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다르기에 어느 선택이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다. 목돈으로 받으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잘못된 투자로 투자손실이 날 경우이다. 본인이 직접 투자한 경험이나 간접투자로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었다면 목돈으로 받는 선택은 어려운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위험을 피하려고 연금 받는 것으로 선택하면 여기에도 분명 위험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은퇴자가 사망하면 연금도 함께 없어진다. 물론 배우자가 받는 선택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선택은 은퇴자 혼자서 받는 금액보다는 적은 액수가 된다. 만일 목돈으로 받아서 IRA에 롤오버(rollover)를 하게 되면 은퇴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받게 되고, 남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가 있다.

돈의 유동성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은퇴

자 혹은 배우자가 심각한 병에 걸린다고 해도 받는 연금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나 목돈으로 받으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목돈이 얼마라고 정해지면 이만한 목돈으로 어뉴어티(Immediate Annuity)를 보험회사로부터 사면 매달 얼마씩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이 숫자를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과 비교한 후 결정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목돈 일부는 투자(목돈을 계산한 이자보다 더 받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등 다른 곳에 사용하고 일부는 어뉴어티를 구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연금으로 받는 결정을 하면 물가상승(Inflation)이 큰 문제가 된다. 물가가 요즘 8%까지 상승했는데 연금으로 받는 액수는 전혀 증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은 투자가 복리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은퇴자에게는 같은 복리 효과로 돈의 값어치가 무섭게 적어간다는 사실이다.

연금 계산법은 대략 60세 은퇴자가 85세

까지 산다면 수익률이 2.5% 정도이고 95세까지 산다면 4% 수익률이다. 이 수익률과 주식시장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난 13년 동안에는 15% 그리고 9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정도가 된다. 주식시장이란 우리에게 익숙한 아마존, 애플, 구글,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은 기업 500대 기업을 하나로 묶은 투자 종목이다.

선택하는데 마음(Emotion)의 감정을 무시할 수 없다. 한국에서부터 퇴직금을 받아서 잘못된 투자나 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금이 전부 날아갔다.' 라는 말을 종종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성인 배우자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연금을 선택한다. 그러나 주식시장 수익률과 연금의 수익률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하면 모든 투자는 물가상승 이상으로 불어나야 생활비가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다.

연금으로 받느냐? 목돈으로 받느냐?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본인 당사자는 물론 사랑하는 배우자와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郎世紀, 27세 풍월주風月主 흠돌欵突(4)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김흠돌이 풍월주에 오르면서 김흥원金興元을 부제로 임명하였다. 통례적으로 부제가 차기 풍월주가 되었는데, 흥원은 무슨 연유인지 28세 풍월주가 되지 못했다(흥원은 66~662년까지 흠돌의 부제로 화랑도를 이끌었다). 흥원은 후일 681년 김흠돌과 함께 역모(김흠돌의 난)을 일으켜 삼간三奸(흠돌, 흥원, 진공 세 명을 일컫는다)의 한 명으로 처형되기 전까지 늘 조정과 강등된 자신의 고통에 대해 불만을 품고 살았다.

제24대 진흥왕은 사도왕후와의 사이에서 3남4녀를 낳았다. 장남은 동륜태자이고, 차남은 제25대 진지왕(금륜, 또는 사륜)이며, 삼남은 구륜이다. 그리고 장녀 태양공주, 차녀 아양공주, 삼녀 은륜공주, 사녀 월륜공주가 그들이었다. 태양공주는 어려서 부터 오빠인 동륜태자를 섬겼다. 572년에 동륜이 '개 사건'으로 졸지에 죽자, 금륜이 태자에 책봉되었다. 그리고 태양은 금륜태자를 섬겼으며, 금륜은 576년 왕위에 올라 진지왕이 되었다. 태양공주는 진지왕이 579년 폐위될 때까지 섬겼다(진지왕은 폐위된 후 곧 죽었다). 차기 왕위는 태양공주의 조카, 즉 동륜의 장남 백정에게로 이어졌으니, 그가 진평왕이다. 그리고 태양공

주는 조카인 진평왕을 모시게 되었다. 얼마후 아들 둘을 낳았다. 그들이 태원太元和 호원好元이다. 하지만 태양공주는 진평왕에게 헌신적이지 않았는지 늘 곁에 여러명의 사신私臣을 두고 있었다. 게다가 그 두 아들들은 진평왕을 전혀 닮지 않았다. 즉 태원과 호원 두 왕자는 성골임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아버지의 피와 어머니 태양공주의 행실이 문제가 되어 "통統을 얻지 못했다" 고 화랑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화랑세기의 그 내용과 문맥으로 보아 통이란 제통帝統을 말한다. 제통이란 즉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말함이다. 첨언하자면 태원과 호원은 성골의 왕자였지만, 어머니 태양공주의 남성편력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골骨' 을 의심 받았으며, 결국 왕위 계승권을 박탈 당하였다. 즉 성골에서 진골로 즉강廢降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남자로서는 마지막 성골이었다는 진평왕에게는 성골의 적자가 사라지게 되자, 사위 용수/용춘에게 왕위를 이으려고도 하였지만 결국 딸 덕만공주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다. 그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 선덕여왕이다. 그리고 여왕 선덕과 진덕을 끝으로 성골은 남자든 여자든 완전히 종적을 감추었다. 진덕 여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태종무열왕, 즉 최초의 진골왕 김춘추도 진지왕의 장손이지만, 진지왕이 폐위되어 죽으면서 그의 적자 용수와 용춘도 성골에서 진골로 즉강되었기에 김춘추 역시 진골의 신분이 되었다.

화랑세기를 통하여 보면, 성골(대원신통이나 진골정통)의 골품을 잇기 위하여 남매사이나 사촌간의 혼인과 색공이 많이 있었다. 심지어 상대의 숫자에 관계없이 용인되었는데(부모와 가족의 허락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단지 성의 희락을 위한 관계는 행실의 문제로 많은 비난을 받은 기록도 여럿 전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금진낭주410, 태양공주, 은륜공주 등이다.

김흠돌의 부제 흥원이 태양공주의 둘째 아들 호원의 아들이다. 즉 진평왕의 손자인 흥원은 왕위가 선덕과 진덕을 거쳐 폐주廢主의 손자인 김춘추에게로 넘어가는 것을 용납하기가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화랑세기에 그 심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가 흠돌과 손을 잡고 역모를 꾸민 연유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흠돌조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한다.

[무열제武烈帝가 죽고 문무제文武帝가 즉위하자, 자의慈儀를 후후로 삼았다. 자의는 흠돌의 악함을 알았으나, 문명태후에게 호도를 했으므로 한마디 말도 발설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흠돌은 호원공好元公의 아들 흥원興元을 부제로 삼았다. 애초에 태양공주太陽公主가 진평대제를 섬겨 태원太元和 호원好元을 낳았는데 帝제를 닮지 않았다.

공주는 어려서 동륜과 금륜 두 태자를 섬겼는데 사신私臣을 좋아했다. 제帝를 섬길 때도 역시 그러했다. 그러므로 양군兩君(태원과 호원)은 통統을 얻지 못했다. 흥원은 제통帝統

이 자기에게 있다고 혼자 생각하여 조정을 원망하고, 누이를 흠돌의 첩으로 삼아 결탁했다.]

위 인용문의 등장 인물들의 면면을 보면, 무열제는 태종무열왕 김춘추이고 문무제는 춘추의 장남 김법민으로 제30대 문무왕이다. 문명태후는 무열왕의 왕후 김문희(김유신의 동생)이다. 자의는 문무왕의 왕후인데, 부모는 21세 풍월주 김선품과 보룡이다. 선품은 21세 풍월주를 역임하였고, 보룡은 12세 풍월주 김보리의 딸이다.

410) 금진낭주는 초대 풍월주 위화랑의 딸이다. 언니 옥진과 함께 법흥왕의 후궁으로 있다가 출궁되었다. 그리고 구리지의 구혼을 받아들여 토함과 5세 풍월주 사다함과 딸 새달을 낳았다. 금진은 남편 구리지가 변방으로 출전할 때는 남편의 용양신 설성과 사통을 하였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기도 했는데, 그가 7세 풍월주 설원랑이다. 구리지가 독산성 전투(548년)에서 전사하자 설성을 남편으로 맞았다. 그러나 금진의 색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아들 사다함의 사우死友(죽음도 함께 하자고 맹세한 친구) 무관랑을 침실로 끌어 들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252nd Beethoven[^] Birthday B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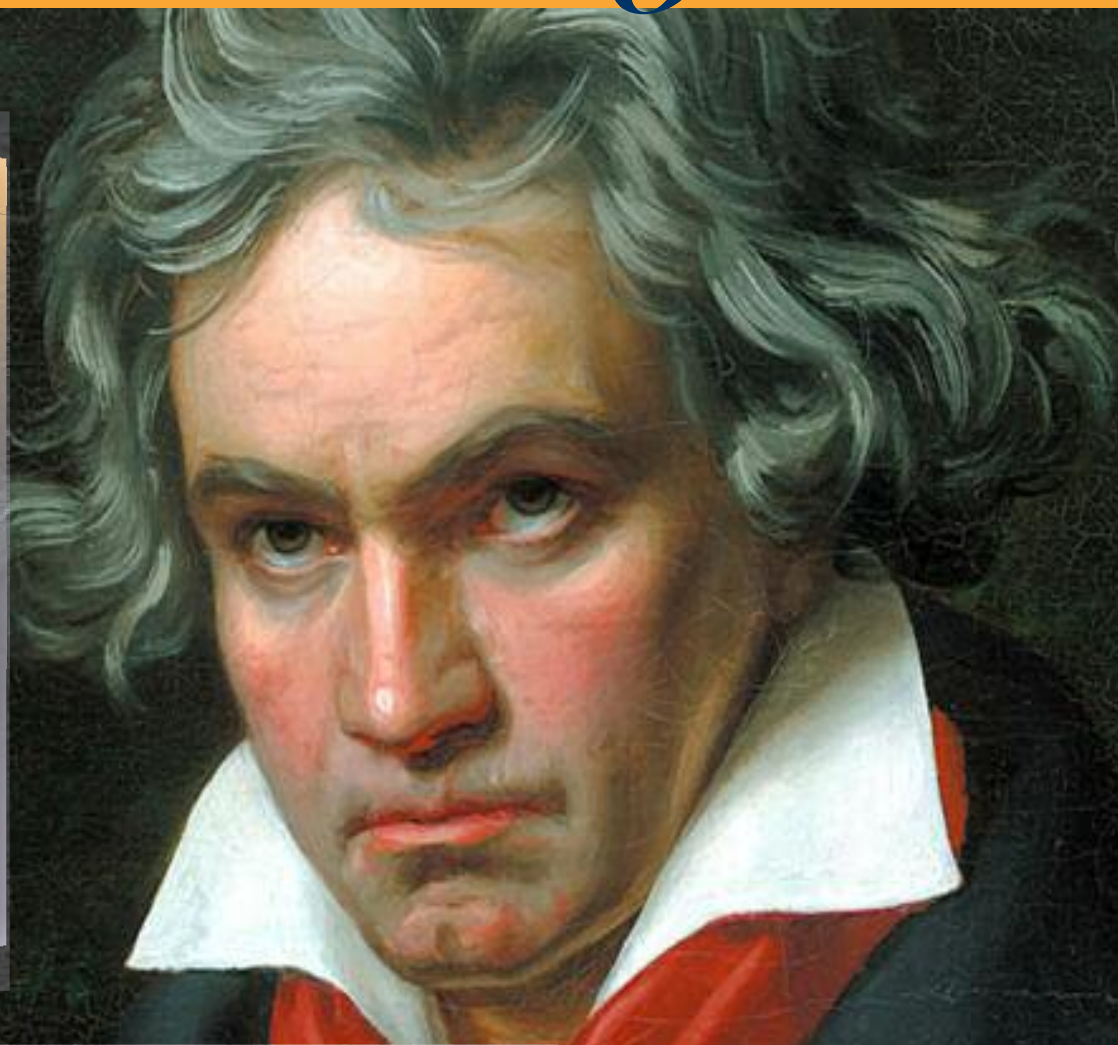
PROGRAM

All-Beethoven

Trio op. 1 No. 1
in E-flat

Piano Sonata op. 81a
in E-flat ("Les Adieux")

Trio op. 97 in B-flat
("Archduke")



Bo Youp Hwang
violin



Owen Young
cello



Jerome Rosen
piano

Sunday, December 11, 2022 at 3 PM

First Church in Boston • 66 Marlborough St, Boston

Donation suggested: \$15 • Tel. 781-874-0861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스티브 배 (이민법/부동산/상법 변호사)
Law Office of Steve Bae
O) 781-457-8846
C) 929-398-9591



가족 구성원의 파생 망명 지위

미국에서 망명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한 망명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청원은 자신의 망명 신청을 청원 할 때에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법적으로 자신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라는 것과 청원 대상 자격이 충족된다는 것을 증명할 증빙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에 있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명 지위 신청자의 배우자나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미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망명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가족 구성원을 신청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신청자의 망명 신청이 승인될 경우 신청서에 추가된 가족 구성원은 자동으로 파생 망명 지위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다른 절차가 수반됩니다. 신청자의 가족 구성원이 (1) 미국 외부에 거주하거나, (2) 미국 내에 거주하지만 신청자의 망명 지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

려지기 전에 신청서에 추가되지 않았거나, (3) 미국 내에 거주하지만 신청자의 망명 지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졌을 때에 신청자와 함께 추방 절차에 함께 속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파생 망명 지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망명 신청자는 별도로 “망명자 친척 청원서” 를 이민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청원서는 신청자가 망명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당국은 2년이 지난 후에도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망명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2년이라는 기간 내에 망명자 친척 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파생 망명 지위를 부여받은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최종적으로 미국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망명 신청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가족 구성원이 귀하를 통해 망명 지위를 얻기를 희망한다면 선택 가능한 여러가지 신청 방법들과 가족을 위한 최적의 선택에 대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결혼을 계획 중이거나 자녀를 가질 계획이고 “미래” 가족 구성원이 귀하를 통해 망명 자격을 얻기 원하는 경우에도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고 다양한 선택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 13일 - 11월 19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쥐띠 | 다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운수: 현재 상황만 가지고 속단하지 마세요. 인생이란 다 살아봐야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금전: 들어오는 것에 비교해서 써야 할 일이 더 많으니 나가는 돈이 많을 것입니다. 급한 순서를 정해서 지출해야겠습니다. ●애정: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계속해서 봐줄 자신이 없으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5, 18일 길일, 13, 16일 주의.

소띠 |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

●운수: 지금은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입니다. 직접 나서서 도움 줄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지나가세요. ●금전: 생각지도 않은 지출을 하게 됩니다. 꼭 써야 하는 물건이 고장 나거나 더는 쓸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애정: 이미 아픈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16, 19일 길일, 14, 17일 주의.

범띠 | 변화를 시도해야 발전이

●운수: 생각보다 일이 잘 진행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만나주지 않을까 염려하던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금전: 편한 것에 안주하던 발전이 없습니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변화를 시도해야 발전이 있고 재물이 들어옵니다. ●애정: 시작한 사랑이 아니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게 됩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3, 17일 길일, 15, 18일 주의.

토끼띠 | 만족하면서 지나가야

●운수: 다른 사람이 주는 정보에 의존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결과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금전: 들어오는 것이 있으나 나가는 것도 많을 때입니다. 지금은 현상 유지에 만족하면서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애정: 사람을 잘 가려서 만나야 합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 때문에 같은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4, 18일 길일, 16, 19일 주의.

용띠 |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운수: 세상 돌아가는 것이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쉽지 않지만, 여유를 가지면 뜻밖의 귀인을 만나거나 풀립니다. ●금전: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말을 생각하세요.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이 크게 다를 것입니다. ●애정: 구관이 명관입니다. 새로운 것만 찾지 말고 오랫동안 내 곁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5, 19일 길일, 17, 18일 주의.

뱀띠 | 새로운 바람과 변화가

●운수: 용기를 내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바람과 변화의 흐름이 오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 크게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나름대로 만족할만한 수입이 따라올 것입니다. ●애정: 지나치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다른 사람들은 그리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4, 16일 길일, 15, 18일 주의.

말띠 | 청명하게 갠 하늘처럼

●운수: 모처럼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심신에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청명하게 갠 하늘처럼 머리로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금전: 차츰 소득이 증가할 것입니다. 금전유통이 수월하게 잘 풀리니 열심히 일한 만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애정: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02, 90, 78, 66, 54, 42년생은 14, 17일 길일, 16, 19일 주의.

양띠 | 기대와는 다르게

●운수: 가만히 두면 기분이 점점 더 가라앉게 됩니다. 우울함을 떨쳐버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전: 남을 믿고 돈거래를 하면 손해가 따를 것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일절 거래하지 마세요. ●애정: 좀 나아질까 하는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13, 18일 길일, 17, 19일 주의.

원숭이띠 | 믿음을 보여주어야

●운수: 때로는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욕심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금전: 추진해오던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될 것입니다. 자금 사정이 점차 나아지고 있으니 희망도 보입니다. ●애정: 우선은 믿어주어야 합니다. 이 쪽에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상대도 뭔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6, 19일 길일, 17, 18일 주의.

닭띠 | 미리 확인하고

●운수: 예약이나 약속한 것이 있으면 미리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괜히 헛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 이대로 더 유지하는 것은 무리이니 뭔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애정: 좋았을 때는 그런대로 견뎌낼 수 있었어도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어지면 더는 참고 살기 싫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5, 16일 길일, 13, 19일 주의.

개띠 |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운수: 모두를 만족시켜줄 수는 없으니 누군가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금전: 큰 소득을 바라면서 욕심내기보다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애정: 혼돈의 계절의 한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 자신도 제어하기 쉽지 않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3, 15일 길일, 14, 19일 주의.

돼지띠 | 공통 관심사를 발견

●운수: 뒤처지기보다는 앞서가고 싶기 마련입니다. 내가 먼저 조금만 양보하면 만사가 편해집니다. ●금전: 힘들 것으로 생각했던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어렵게 얻은 것이라서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것입니다. ●애정: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대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아지는 것만큼 두 사람의 사이의 간격도 좁혀집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4, 19일 길일, 15, 18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8/12
코리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성실하게 일하실 분 구합니다.
셰프 및 키친 스텝.
Tel. 617-308-4742

4/15
로간 공항안에서 딜리버리 일하실 남자직원 모집합니다.
AF Lounge
T. 617-787-1667

2/11
캐슈어 및 과일판매를 도와 주실분입니다.
초보자 가능합니다.
Main Beauty Supply
Tel 508-799-0310, CP 508-524-2910 (Kenny Yoon)

12/17
셀폰 스토어 풀타임, 파트타임 북키퍼 및 매니저 구함
hongkyonghui@hotmail.com

베벌리 타운 피자 가게 직원 급구함
캐시어 등 모든 포지션 직원
경험자 우대, 무 경험자 환영
영어 가능자 선호
617-251-1120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 781-648-0584



“광고는 영화다”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o@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화려해진 비주얼 · 강렬한 액션... '블랙 팬서'가 돌아왔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전작보다 더 화려해지고, 액션은 강렬해졌다. 지상 최강국 '와칸다'와 수중 왕국 '탈로칸'은 신비로운 비주얼로 그려지며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와칸다의 국왕 '티찰라'는 죽음을 넘어 이제 선조들의 세계로 떠났지만, 영웅 없는 난세에 새로운 수호자가 탄생한다. 영화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를 통해서다.

'블랙 팬서'의 후속편인 이번 영화는 와칸다의 국왕이었던 티찰라의 죽음 이후 위기에 직면한 와칸다가 수중 왕국 탈로칸과 갈등을 빚으며 운명을 건 전쟁에 뛰어드는 이야기를 담았다.

압도적인 볼거리, 더욱 거대해진 세계관에 드라마적 요소가 가미되며 작품 곳곳에 재미가 적지 않다.

전작에서 티찰라 국왕, '블랙 팬서' 역을 맡았던 채드윅 보즈먼이 2020년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면서 작품 속에서 더는 그를 볼 수 없다. 하지만 모두가 새로운 히어로의 탄생을 기다렸다는 듯 영웅은 시련을 견뎌내며 와칸다의 새 지도자로 올라선다.

작품에서는 배우들의 업그레이드된 액션이 눈길을 끈다.

제작과정에서는 수중촬영이 진행됐는데, 출연 배우들은 이를 소화하기 위해 저마다 '특훈'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극 중 티찰라 국왕의 여동생인 슈리 역을 맡은 배우 레티티아 라이트는 작품 촬영을 위해 수영을 배우고, 다이빙 팀과 작업을 하며 산소통 없이 프리 다이빙하는 법까지 익혔다고 한다.

액션을 선보이는 배우들의 의상도 전편보다 화려함이 배가됐다.

전편 '블랙 팬서'로 제9회 아카데미 의상상을 받은 루스 E. 카터가 이번 작



품에도 함께 했는데, 새 영웅으로 떠오른 슈리는 물론 탈로칸의 지도자 '네이머', 와칸다 · 탈로칸 전사들의 전투 복장 등 인상적인 볼거리가 많다.

영화에는 채드윅 보즈먼을 회상하고 추억하는 장면들도 담겼다. 그의 은화하고, 밝은 미소를 작품 속으로 들여온 제작진은 채드윅 보즈먼의 존재를 결코 잊지 않겠다는 뜻 엔딩 크레딧을 통해 작품을 헌정한다.

속편의 연출은 전편에 이어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맡았다.

'블랙 팬서'는 2018년 국내 개봉 당시 539만 명의 관객을 불러 모아 흥행에 성공했다. 속편이 전편 이상의 성과를 거둘지에 관심이 쏠린다.

'블랙 팬서: 와칸다 포에버'는 9월 전 세계 처음으로 한국에서 먼저 선보인다.

161분. 12세 이상 관람가.

BTS 진 '디 애스트로넛',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 51위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맏형 진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첫 솔로 싱글 '디 애스트로넛'(The Astronaut)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진입에 성공했다.

8일(현지시간) 공개된 최신 차트에 따르면 이 노래는 '핫 100' 51위에 이름을 올렸다.

'디 애스트로넛'은 전 세계 200개 이상 국가의 스트리밍과 판매량을 집계해 순위를 내는 '빌보드 글로벌 200' 10위,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6위에도 각각 올랐다.

'디지털 송 세일즈'와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에서는 각각 1위였다. '캐나다 핫 100'에서는 58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의 앤솔러지(선집) 음반 '프로프'(Proof)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66위로 21주 연속 진입했다.

이 앨범은 '월드 앨범' 1위,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 31위, '톱 앨범 세일즈' 37위도 각각 기록했다.

2017년 9월에 발매된 '러브 유어셀프 승허'(LOVE YOURSELF 承 Her)는 '월드 앨범' 15위, '톱 앨범 세일즈' 92위로 재진입했다.

이 밖에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166위, '다이너마이트'(Dynamite) 184위로 집계됐다.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마이 유니버스' 110위, '다이너마이트' 126위, '버터'(Butter) 186위로 조사됐다.

멤버 정국이 미국 싱어송라이터 찰리 푸스와 협업한 '레프트 앤드 라이트'(Left and Right)는 '빌보드 글로벌' 91위,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75위, '어덜트 팝 애플레이' 34위, '캐나다 핫 100' 72위로 각각



나타났다.

tsl@yna.co.kr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사실 그 너머의 진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 또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그것이 진정 사실인지, 내 생각인지, 내 느낌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마음의 결정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야말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느낌대로 표현하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곁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다. 이제는 인생에서 어떤 일과 마다뜨렸을 때 내 감정에 이끌리지 않고 그것이 사실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내 느낌인지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마음은 생각과 느낌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을 보고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그에 따른 느낌이 올라온다. 어떤 사실과 생각, 느낌이 구분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느낌과 생각에 끌려 다니고 만다. 그러나 마음이 생각과 느낌으로 선명하게 나누어지면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안의 생각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니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 다니지 않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생각을 바꾸면 느낌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하고 울컥 일어나는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해 순간 뱉어버린 말이나 행동으로 자신에게 더 깊은 실수와 상처를 만들 때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깊은 성찰이 없이는 변화할 수 없는 부분이며 무의식에 있던 분노가 표출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늘 불안정한 존재이기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묵상(명상)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어른'이 '어른 아이'로 자라는 것이며 그저 '늙은이'로 늙어가는 것뿐이다. 그 어떤 일이나 관계에서도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고 마는 '어른 아이'로 자라는 것이다.

일상에서 부딪치는 작은 소소한 일들 가운데서조차 순간에 일어나는 생각에 끌려 다니지 말고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노력을 하다 보면 나 자신이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는 힘(에너지)이 생기게 되고 그 생각을 바꾸게 되면 느낌은 저절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조금씩 마음을 들여다보는 연습과 노

력을 하다 보면 그 다음으로 생각과 느낌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스스로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듯 인생은 나 혼자 아닌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나와 내가 우리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연습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삶의 과제 중 '성공의 키'라면 '관계의 풀이'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예전처럼 어떤 연결고리에 의해 인생의 행로가 성공이나 실패로 결정지어졌던 학연이나 지연 따위는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화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온 변화는 그런 지난 것들마저도 받아들이고 밀어내지 않는 포용력에 달렸다는 것이다. 내가 그들 속에 속하지 못했다고 그들을 탓하거나 밀어내지 말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얘기이다. 내 성공을 위해 아첨하거나 비굴해지지 않는 나 자신의 당당한 삶 가운데서 더 넓고 멀리 보라는 것이다.

그렇게 넉넉함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마주한다면 그 어떤 상황에 부딪치더라도 흔들리거나 좌절하지 않는 힘(에너지)이 있어 든든한 것이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분노를 느끼게 되고 남을 탓하게 되며 나

자신은 더욱 초라해지고 좌절감에 흔들리고 마는 것이다. 자신이 느끼는 그 감정으로 분노는 더욱 커지고 그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으면 자존감의 상처로 인해 분노조절장애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주변의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철저히 자신을 사랑하며 지킬 이유가 있다.

분노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하다. 그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되어질 때 억울함이 표출되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의 하나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조절인데, 그 조절을 어떻게 잘 표현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순간 울컥 폭발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깊은 호흡으로 잠시 나를 돌아보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나의 생각인가 나의 느낌인가 아니면 진정 사실인가를 잠시 물어보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지금 일어난 이 감정이 사실인가, 생각인가, 느낌인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쪽빛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보스톤 가을하늘은 푸르다. 11월인데도 여전히 파랗다 못해 정녕 눈부시다. 나태주 시인이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엔 차마 가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서리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날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나태주, 11월)

사진 한장이 눈에 띄었다. 항공사진인데, 바닷가에선 좀체로 볼수 없는 붉은색이 눈에 잡혔다. 적조赤潮인지 해초인지 노란색과 푸른색 하늘이 조화로웠다. 그러나 역시 푸른색이 제일이라던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인데, 붉은색이나 초록이나 노란색에 비해 선호도가 높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을 거다. 푸른색은 정신생리학적 효능이 있다 했고, 치유효과도 만점 이란다. 긴장상태를 완화하기도 했으니, 푸른빛 가을하늘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은 없

을지 싶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쪽빛인데 푸르렀다. 그날 하늘 색깔이 그랬다. 누구는 푸른 물이 툭툭 떨어질 것 같다고 했는데 붉게 물든 단풍색과도 사뭇 어울렸던 거다. 단풍은 적색도 아닌 홍색이었고, 황황보다는 옅거나 진한 유향색이었다. 검은색 아스팔트 차길이 받치고 있었다. 쪽빛 하늘 배경과 뚜렷이 구별지어졌던 거다.

쪽빛은 가장 넓은 바다색이며 넓은 하늘 색이라 했다. 하늘이 만든 너른 색을 내 앞은 입술과 언어로 형언할 수 있겠는가. 심지어 김지하도, 조정래도 도무지 표현할 수 없

다고 했다. 뭐라 해야 하나? 고개를 가로저었다는데, 필설로는 차마 읊길 수도 없다.

자연을 인간의 언어로는 도무지 읊겨낼 수는 없다. 그저 흉내만 낼 뿐이고, 자연에서 빌려 왔다고 밖엔. 대출貸出인데, 이 쪽빛은 자연에 구태여 반납할 필요는 없다. 무궁무진 나타날 테니 말이다.

쪽색은 분명 식물 쪽에서 나온 이름일터. 감색이나 군청색에 비해 이름도 은은하다. 그럴적에 쪽색 하늘을 쳐다 본 그날은 하루 종일 기분이 상쾌했다. 하늘에서 쪽빛을 빌려 가슴에 담았다.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찻네 (찬송가 79장)



MassDREAMS Grant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은 지역 분들에게
주택구입시 계약금 및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보조금 입니다.

*First-time Home Buyer(첫 주택 구입자)는 최근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을 갖춘 주택 구매자에게 최대 \$50,000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MassHousing에서 최대 \$50,000까지 계약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융자에 대한 실직 보호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다른 혜택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적어도 한 명의 신청자는 COVID-19에 의해 불균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커뮤니티의 거주자여야 합니다.
- 모든 적격 차용인은 First-Time Home Buyer(첫 주택 구입자)*임을 증명해야 하며 해당 부동산에 주 거주자로 거주하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No Repayment Required

보조금은 계약금에 사용 할 수 있고 추가 자금은 클로징 관련 비용, single borrower-paid mortgage insurance premiums 및 이자율 상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Cities disproportionately impacted by COVID-19:**

Attleboro	Fitchburg	Lynn	Randolph
Barnstable	Framingham	Malden	Revere
Boston	Haverhill	Methuen	Salem
Brockton	Holyoke	New Bedford	Springfield
Chelsea	Lawrence	Peabody	Taunton
Chicopee	Leominster	Pittsfield	Westfield
Everett	Lowell	Quincy	Worcester
Fall River			

Contact me today to see if you qualify

NOTE: Potential homebuyer must be pre-qualified for assistance through www.mymasshome.org before applying to MassHousing. www.emasshousing.com



Michael Lee
LOAN OFFICER
 NMLS#: 1464242
 cell: (978) 314-8818
mike.m.lee@movement.com | lo.movement.com/mike-mlee



576 Washington St, Wellesley, MA 02482 | www.movement.com



MA-ML01464242, NH, RI | Movement Mortgage LLC. All rights reserved. NMLS ID #39179 (For licensing information, go to: www.nmlsconsumeraccess.org). Additional information available at movement.com/legal. Interest rates and products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and may or may not be available at the time of loan commitment or lock-in. Borrowers must qualify at closing for all benefits.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증후군' 예방 및 치료는?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호소하고 있는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서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병원 광명병원 가정의학과 신우영 교수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장기간 다양한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른바 '롱코비드(Long COVID)' 환자들이 적지 않다.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피로감으로, 산책 등 간단한 일을 한 후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충분히 휴식을 취하거나 푹 자고 일어나도 호전되지 않는다.

또 다른 증상은 '브레인 포그(brain fog)'라 해서 마치 뇌에 안개가 낀 것처럼 평소보다 주의력이나 집중력, 기억력이 떨어짐을 느끼고 일상적인 활동을 하다가도 자주 멍하게 있게 된다.

이러한 증상들은 급성 코로나19 감염 시에 무증상이었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였더라도 분명한 장기손상 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개월 간 지속될 수 있고 1년 넘게 가는 경우도 많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후유증 증상들과 만성 피로증후군(chronic fatigue syndrome) 사이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논문들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만성피로증후군은 휴식을 취해도 회복되지 않는 심한 피로, 운동 후 권태감, 브레인 포그 등을 유발하는 복합적인 다기관 장애로, 바이러스 감염 후에 잘 나타난다고 하여 과거에는 바이러스후피로증후군(post-viral fatigue syndrome)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가정의학과 신우영 교수는 "만성피로증후군은 피로를 유발할 만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이 없음에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재발할 경우 의심해 볼 수 있다"며, "급성 코로나19 감염 후 지속적으로 경험하였다고 보고된 증상은 200여가지가 넘으나, 그중 가장 흔한 증상들인 회복되지 않는 피로감, 건망증, 집중력 저하, 인후통, 근육통, 관절통, 두통, 수면장애, 운동 후 권태감 등 만성피로증후군의 진단기준과 매우 흡사한 증상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후유증과 만성피로증후군의 유사성에 대해 공통된 유발 원인이나 기전은 명확

히 알려져 있지 않다.

전문가들은 만성적인 전신 염증반응, 바이러스 잔류물에 의한 지속적 손상, 면역 이상, 호르몬 불균형, 자율신경계 혼란 등으로 추정한다. 최근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연구진은 롱코비드와 만성피로증후군 모두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기전으로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 증상의 치료에 대해 신우영 교수는 "만성피로증후군의 치료로 인지 행동 치료, 유산소운동법 등이 있지만, 만성피로증후군이나 코로나19 후유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이 다양한 증상들을 갖고 내원하므로, 모든 환자에게 한 가지의 치료나 관리 방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며, "의사와 환자가 함께 충분히 상의해 체내 기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통합적 관리와 치료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교수는 "그전에 먼저 포괄적인 진찰과 검사를 통해 증상의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는 숨겨진 중요 질환들을 명확히 파악해 필요 시 교정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로감의 경우 장기간 개선하지 않고 방치하면 집중력 감소나 수면장애, 여러 통증 등이 악화될 수 있고 면역력이 더 저하되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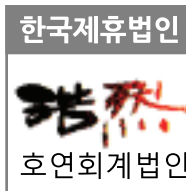
정신과적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신 교수는 "장기간의 피로나 저하된 면역력을 회복하려면 본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적당한 강도의 꾸준한 운동과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식사습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식품만으로 건강유지에 필수적인 단백질이나 비타민, 미네랄 등이 충분히 섭취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를 위해 의사와의 진료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영양제 처방을 통한 보충이나 영양 수액 주사가 도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만성피로증후군' 예방 및 치료는? ”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더 많은 가족 모임을 위해 최신 COVID 백신을 접종하세요.

이제 최신 백신이 기존 COVID 바이러스와 오미크론으로부터 여러분과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홀리데이 기간에 맞춰 출시되었습니다. 오늘 최신 백신을 무료로 예약하세요.

[vaccines.gov](https://www.vaccines.gov)에서 5세 이상 모든 분을 위한
최신 COVID 백신을 알아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 자금으로 제공됩니다.

함께
이겨냅시다

보스톤 전망대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은한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일 외교의 수장 곤지왕

지난번 칼럼에서는 서기 461년에 한일 고대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두가지 큰 사건이 있었다. 첫째가 백제 25대 무령왕이 가카라시마의 한 동굴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곤지왕이 외국에 정착하면서 한일 양국의 역사가 크게 소용돌이 치게 된다는 것이다.

곤지왕에 대한 사료는 백제 왕씨를 비롯해 백제 유민들이 제출한 백제삼서(百濟三書)를 통해 일본서기에 전해지고 있다.

백제본기는 신공왕후기, 계체천황기, 흠명천황기에 인용되고 백제기는 신공왕후기, 응신천황기, 웅락천황기에 인용되었으며 백제신찬은 웅락천황기, 무열천황기에 인용되었다. 그래서 이들 3서를 원사료로 해서 백제사가 정리된 듯하다.

곤지는 백제 20대 비유왕의 4째 아들로 21대 개로왕의 사촌 동생이었다. 곤지에 대한 기록은 일본서기 웅락천황 5년(462년), 개로왕 8년에 왜국으로 보내진 것으로 되어 있다.

왜왕 웅락이 재위 2년에 백제출신 여자 지진원(池津媛)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그녀는 석천순(石川楯)과 이미 정을 통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웅락은 화가 나서 두 남자를 나무에 묶어 잔인하게 태워 죽였다. 이후 웅락은 백제에 다시 미인을 청했던 모양인데 백제 개로왕은 지진원이 화형 당했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채녀(采女)를 보내지 아니했다. 그러나 3년후에 백제 왕실은 몹시 어려운 처지를 당하게 된다. 백제 비유왕은 진작에 반란군에게 살해되었고 대를 이은 개로왕은 정식으로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왕자의 신분으로 개로왕이 아닌 가수리군으로 호칭하고 있었다. 한쪽에선 반란군이 세력을 형성하여 왕권을 노리고 있었고 밖으로는 고구려가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개로왕의 입지가 몹시 딱하게 되었다.

당시에 곤지의 직함은 군군(軍君)으로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왜국으로부터의 도움이 절실한 사정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곤지는 백제에서 파견한 외교사절의 자격으로 웅락천황과 협조하게 된다. 곤지는 예정대로 지금의 오사카 난파(難波)에 상륙해서 가와치 아스카의 하비키노에 정착한다.

난파항구는 당시 왜국의 정치, 경제의 중심지로 100여년전 아신왕 년간에는 많은 백제인들이 광개토태왕에게 쫓겨 이곳에 모여 살고 있었다. 더구나 백제 왕족 나리아스도톤이(758-811)이 이 지역에 운하를 만들어 백제인들이 급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딴 도톤부리가 지금까지도 널리 알려진 지명이 되었다.

곤지왕이 정착한 하비키노는 원래 행정지명이었으나 본래부터 우리나라 지명인 구다라고우리 백제군으로 불리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 초기였던 메이지 24년인 1891년에 히가시나리군 후루이찌로 행정지명이 바뀌었다가 1922년 다시금 현재처럼 오사카부 하비키

노시가 되었다.

곤지왕을 제신으로 모신 아스카베 신사를 가려면 오사카 아베노바시에서 긴테츠 전철의 미나미 오사카 선을 타고 17번째, 성덕태자 능이 있는 카미노타이시(上太子)역에서 내리면 된다. 전철을 탈 때 앞쪽 3칸중 하나를 타야 목적지인 카미노타이시역에 내리게 된다. 15번째 역인 후루이찌에서 전철을 분리해 앞의 3칸만 목적지로 가는데 2정거장만 더 가면 카미노타이시역이 된다.

전철역을 나오면 우측 등성이에 공동묘지가 있고 자동차가 겨우 다닐만한 골목길이 뚫려 있다. 이 길이 지금은 좁다란 골목길이지만 곤지왕 생전에는 "역사의 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다케노우찌 가도(竹内街道)로 일본 제일의 국도였다. 이 길을 통해 백제 사신들이 난파의 가와찌를 통해 나라 아스카에도 착하곤 하였다.

곤지왕을 모신 아스카베 신사는 카미노타이시역에서 큰소리로 소리치면 금방 들릴 수 있는 지척지간에 있었는데 신사 정면에 아스카베 신사라고 쓴 편액이 달려 있었다.

원래는 곤지왕 신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제시대 때 한반도계 이름을 없애려고 의도적으로 아스카베 신사로 이름을 바꿔 버렸다.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은 한인 동족론과 관련된 사실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하였다. 더구나 한국이 본가(本家)가 되고 일본이 분가(分家)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였다. 아스카베 신사는 일본 황실이 모든 왕실의 제도와 규범을 정하고 신사의 등위를 정한 연희식(延喜式)에 따르면 정위에 속한 황실 사당인데 등위에 어울리지 않게 퇴락해 가는 신사였다. 돌층계를 올라가면 상단에 곤지왕 신위가 모셔 있고 왼쪽에 신사 건물이 있다. 그리고 주위의 산등성이에는 온통 포도밭이 전개되어 있다. 여기서 재배되는 포도는 임진왜란때 풍신수길이가 한반도 풍종을 가져다 재배한 무라키시 종이라는 포도라고 한다. 백제 사람들이 모여사는 이곳에 한반도 포도를 재배한다고 하니 묘한 인연이다.

예전에는 신사주위의 산에 백제인들의 황혈식 석실분들이 무척 많아서 이 고분들을 아스카 천총(千塚)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개발의 붐을 타고 50여기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중에 죽장의 무덤으로 생각되는 고분을 간논스카 고분이라고 부른다.

가와찌 지역에는 백제 유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반도 3국의 유적이 함께 모여 있다. 후루이찌와 곤지왕 사당이 있는 카미노타이시역 사이에 고마가타니역이 있는데 그 일대가 고구려 사람들이 살던 곳으로 그들 무덤군을 고마가야 고분군으로 부른다. 또 후루이찌역에서 동편으로 가지말고 계속 남쪽으로 가면 첫번째 역이 기시역으로 그 일대의 시라기(白木) 가와찌정(河内町) 일대가 예전에 신라 사람들이 살던 터전으로 가네야마 고분군을



가와치에서 나라에 이르는 역사의 길



간논스카 백제 고분의 출토물



난파진의 백제니사 명문토기



아스카베 신사 정면에는 비조호신사라는 명칭이 쓰여 있다



아스카베 천총은 곤지 후손의 무덤으로 추종

조성하고 있다.

백제인들의 전통적인 황혈식 고분이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4세기말로 곤지왕이 이곳에 도착하기 100여년전부터 백제인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아스카베 왕국을 세우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곤지왕에 대한 에필로그

곤지왕 461년에 개로왕의 명에 따라 477년까지 16년동안 왜국에서 백제를 위한 후방 기지를 마련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은 지난번 칼럼에서도 언급한 바 있었다.

그러나 475년 9월에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을 압박해오자 개로왕은 문주 왕자에게 목협만치 장군과 함께 신라로 가서 자비왕에게 만명의 병력을 얻어 한성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한성은 이미 축대밭이 되었고 개로왕을 비롯한 왕족들은 모두 잡혀 처형을 당한 뒤였다. 이로써 한성 백제의 운이 다해 문주는 웅진으로 천도하게 되었다.

새로 왕이 된 문주왕은 서둘러 왕실을 보전하게 되었지만 백제 왕실은 몰락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백성들은 이미 부여 왕실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고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외척

해씨들은 왕권을 능가하는 힘을 행사하며 기강을 문란케 하였다. 476년에 해씨 세력의 핵심인 해구가 병관좌평이 되면서 왕권은 유명무실해지고 권력은 모두 해구에게 집중되었다. 이에 문주왕은 477년 3월 왜국에 있는 아우 곤지를 내신좌평에 임명해 해씨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정을 바로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곤지가 조정을 추스리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당시의 상황을 삼국사기는 이렇게 은유하고 있었다. "3월 5일 검은 용이 웅진에 나타났다". 2달 뒤인 7월에 곤지가 사망하였다.

곤지왕에 대한 기록은 일본서기 백제신찬에서 인용된 바 있다. 곤지왕의 가와찌 왕조를 연구한 역사학자 가도와키 데이지 교수는 5세기말에 하비키노의 이시가와 골짜기에 곤지왕이라는 백제 왕족이 5명의 아들과 종족들을 거느리고 나타나는데 이들이 한일역사에 크나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의 아들중 2명은 백제왕이 되는데 백제 24대 동성왕(479-501)과 백제 25대 무령왕(501-524)이 되었고 곤지의 막내 아들은 왜국의 25대 게이타이 천황(507-521)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2 ReNEW Confe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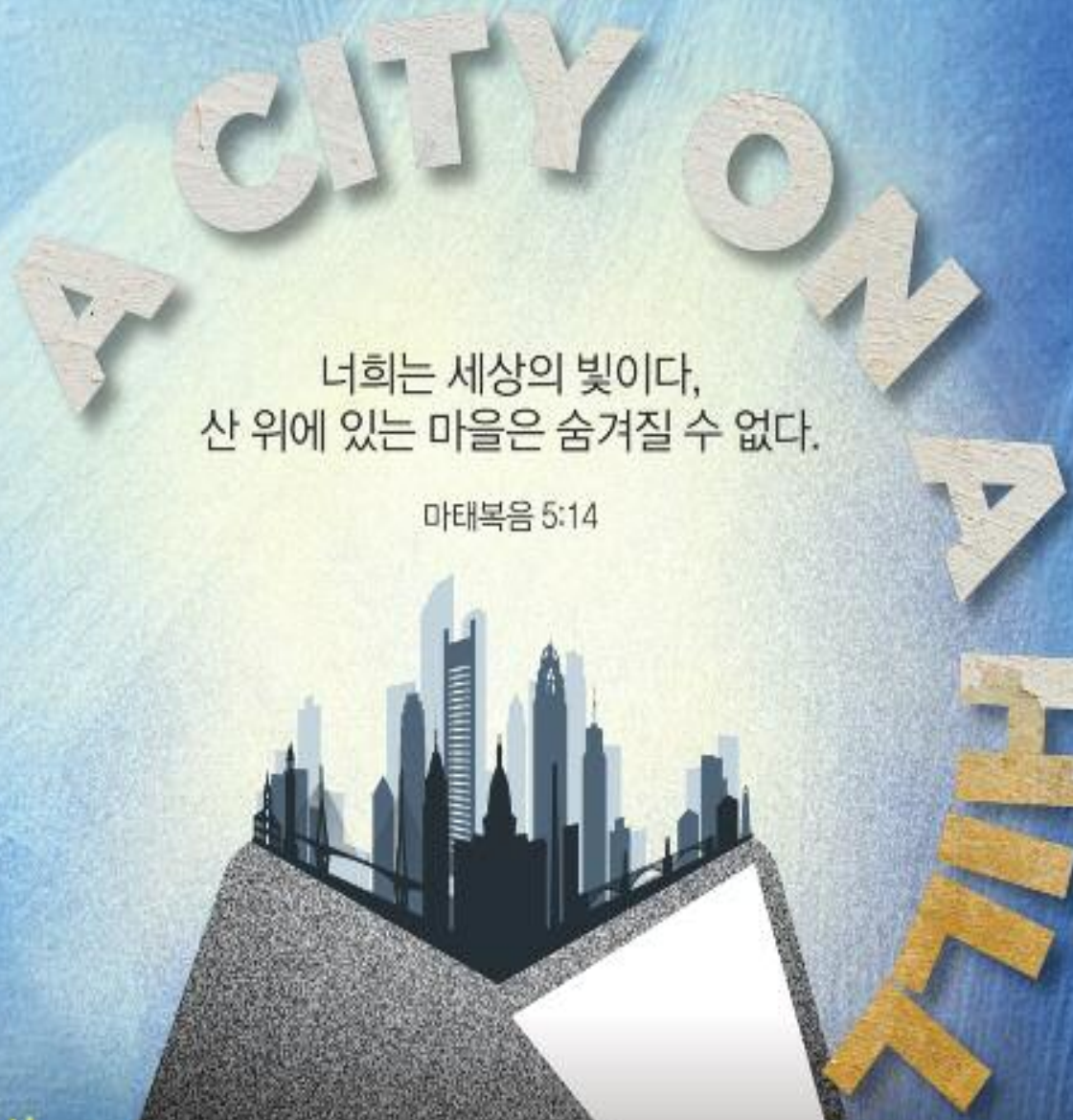
ReNEW



2022.11.24(Thur)-11.26(Sat)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35 Magazine St., Cambridge, MA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겨질 수 없다.

마태복음 5:14

강사

- + 정람 목사 라이트하우스 달라스 교회 담임목사
- + 전성걸 선교사 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TMC 상임대표 및 MEX College 디렉터
- + 조은아 교수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Intercultural Studies 교수
- + 김연준 목사 토론토 하늘씨앗교회 부목사
- + 허천희 목사 토론토 말씀의 교회 담임
- + 지성은 목사 LA 새생명교회 담임목사
- + 심활경 사모 LA 새생명교회 사모
- + 안성호 교수 Gordon College 교수
- + 김희선 교수 기독교 상담가

ReNEW는 대학, 청년, 청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합집회입니다.
집회기간 중 0-2세 영아와 어머니를 위한 Nursery Room 이 마련되며, 3세 이상 자녀를 위한 Kids ReNEW 와 Youth ReNEW 도 함께 진행됩니다.



HOME RENOVATION
NAMU | 나무

- 국제기능올림픽 목재분야 금메달리스트
- 대통령 훈장 수훈
- 15년 이상의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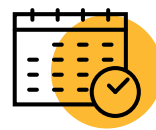
WHY NAMU



정직하고
디테일한 견적



고객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진행



체계적 관리를 통한
계약 기한 내 완공

SERVICE

- ✓ 하우스 레노베이션
- ✓ 커스텀 캐비닛, 데크
- ✓ 원목 테이블, 가구

FULLY LICENSED AND INSURED

- MA Construction Supervisor License (General contractor) 건축자격증 보유
-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 가입

무료
견적 상담

견적부터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고 양심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www.namuma.com
info@namuma.com

617-775-4771
58 Pulaski st, Peabody, MA 01960

INSTAGRAM
@namu_finewood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0명중 20명을 선정해서
\$15 아마존 기프트 카드를 드립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